

축약된 국부론

그리고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축약된 국부론

그리고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외 8인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축약된 국부론
그리고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외 8인**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7년 4월 15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7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and The Incredibly Condensed Theory of Moral Sentiments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Adam Smith Research Trust 2011
Copyright © Adam Smith Research Trust 2011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7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et al.*
Published by courtesy of the Adam Smith Research Trust.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Adam Smith Research Trust의
허락을 얻어 출판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11-5 (0330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차례

1 서론	7
2 축약된 국부론	10
권 I: 경제적 효율과 생산 요소들	12
권 II: 자본의 축적	41
권 III: 경제 성장의 진행	54
권 IV: 경제 이론과 정책	60
권 V: 정부의 역할	77
3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98
4 추가적인 읽을거리	107

- 옮긴이 후기 _ 108
- 옮긴이 소개 _ 110

1 서론

경제학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선구적인 책,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1776)은 길이가 약 950페이지다.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것의 언어는 미사여구를 쓰고 있고, 그것의 용어법은 구식이며, 길이가 70페이지인 것 하나를 포함해서 그것은 주제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그것의 수많은 18세기 예들은 종종 오늘날의 우리를 깨우치기보다 당황스럽게 한다.

그렇지만 《국부론》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다. 뉴턴이 물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다윈이 생물학에 대해서 한 일을 그것은 경제학에 대해 했다. 그것은 시대에 뒤진 것들을 다루었고, 거래, 상업, 그리고 공공 정책에 관한 지혜를 받아들였으며,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들에 따라 그것들을 재(再)진술했다. 스미스는 국부의 측정법으로서 국내 총 생산의 개념을 개설했다. 그는 전문화로 가능하게 되는 막대한 생산성 이득을 식별했다. 그는 단지 판매자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거래로부터 편익을 얻음을 인식했다. 그는 시장이 자원들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가능하게 된 상이한 생산자들 간의 넓고 비옥

한 협력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견해들은 이후 2세기에 걸쳐 경제 과학의 기본적인 구조의 일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국부론》은 읽을 가치가 있지만,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짧은 판, 스미스의 아이디어들을 어떤 현대 논평자를 통해 여과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언어로 제시하는 판이다. 이 책은 색채감을 제공할 만큼의 스미스의 예들과 인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적 개념들이 어떻게 스미스의 초기 아이디어들에서 발전했는지 설명할 방주들을 가지고, 언어와 전문적인 용어들을 최신의 것으로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스미스의 다른 위대한 책이자, 그를 유명하게 만든 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취급을 한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가르친 철학 과목의 산물로서, 그것은 도덕을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본성이라는 면에서 설명했다. 그것은 젊은 버클루 공작(Duke of Buccleuch)의 계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어서, 가정교사로서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을 동행하여 유럽을 두루 교육 여행하도록 그는 즉각 스미스를 (후한 평생 봉급으로) 고용하였다.

시간이 남고, 새로운 통찰들이 이 여행 중에 수집되어서, 스미스는 《국부론》이 될 책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또 10년을 스코틀랜드 자기 집에서 본문을 쓰고 퇴고하는 데,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들을 런던에서 그 시대의 지식인들과 토의하는 데 썼다. 완성된 책은 또 하나의 거대한 상업적 성공이어서, 빠르게 여러 판과 번역에 들어갔다.

그것은 혁명적인 작품이었다. 그것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무역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것은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국내에서 개인들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거래가 양쪽 모두 더 낮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부들이 그 자유를 통제, 관세 혹은 세금을 가지고 간섭할 때 정부들이 자기 국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보다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아이디어들은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사정을 바꾸었다. 그것들은 무역 조약, 조세 개혁, 그리고 관세와 보조금의 해제를 초래했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는 자유 무역과 증가하는 세계 번영의 위대한 19세기 시대를 해방했다.

이 책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어지는 곳에서, 보통의 문자열(normal text)의 자료는 저자가 애덤 스미스의 주장들에 관해 축약한 것이다. 안으로 들어간(indented) 문단들은 스미스 자신의 말들이다. *이탤릭*으로 된 자료는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본 저자 자신이 설명한 것이다.

2 축약된 국부론

한 국가의 부는 그것의 1인당 국민 생산량—평균적인 사람이 실제 생산하는 양—이다. 한 국가가 소유할지 모르는 자연 자원들의 어떠한 주어진 혼합에 대해서든, 이 1인당 생산량의 크기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욱더 중요하게, 이 생산적인 노동이 고용되는 숙련과 효율에도 달려 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견해는 거대한 혁신이었다. 지배적인 지혜는 부가 화폐에—금과 은 같은 귀금속들에—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진정한 부란 사실상 화폐가 사는 것—즉,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액’—이라고 역설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국민 총 생산(gross national product) 혹은 GNP라고 알고 있고 상이한 국가들의 번영의 측정치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권 I은 이러한 생산 효율이 개선되게 되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생산적인 고용은 자본이²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는데

1 《국부론》은 다섯 ‘권들(books)’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는 장들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차후 보게 될 것이다), 권 II는 이것을 탐구한다. 국민 생산은 또한 공공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권 III이 고찰한다. 권 IV는 상이한 경제 이론들을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의 면에서 평가한다. 그 다음 권 V는 적합한 정부 역할, 과세의 원리들,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스미스가 ‘stock’이라고 쓰는 곳에 우리는 오늘날 보통 ‘capital’을 사용하곤 한다.

권 I: 경제적 효율과 생산 요소들

전문화와 생산성

경제적 효율에 대한 열쇠는 전문화—분업—이다. 핀 제조라는 심지어 사소한 기초작업 한 제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 대부분은, 설사 금속이 우리를 위해 이미 채광되어 제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심지어 한 개만 만드는 데도 애를 먹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20개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핀 공장에서 열 사람이 하루에 48,000개의 핀들을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각자가 상이한 작업 부분에 전문화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철사를 뽑아내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곧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그것을 뿔족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대가리를 받도록 꼭대기를 간다. 대가리를 만들고 붙이는 것은 추가적인 전문가 작업들을 필요로 한다. 핀들을 회계 하고 그것들을 포장하는 것은 더욱더 전문가 작업들을 필요로 한다. 전문화는 그 공정을 수천 배 더 생산적이게 했다.

이 엄청난 생산성 이득으로 인해, 업종 안에서뿐만 아니라 업종들 간에도, 전문화가 도입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농업은 만약 농부들이 잠깐 멈추고 설비를 갖추어 자기들 자신의 가정용품들을 만들기도 하는 데보다 자기들의 토지, 자기들의 작물 그리고 자기들의 가축을 돌보는 데 자기들의 모든 시간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철물상들과 가구 제작자들도 만약 그들이 또한 자기들의 노력을 자기들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는 데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면 이 가정용품들을 훨씬 더 많이 생

산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전 국가들도 전문화하여 자기들이 가장 잘 만드는 재화들을 수출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상품들을 수입한다.

노동의 생산력의 가장 큰 개선은,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선 돌려지거나 적용되는 숙련, 솜씨 좋음, 그리고 판단의 더 큰 부분은, 분업의 효과였던 것 같다.³

세 가지 요소들은 전문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엄청난 효율 상승을 설명한다.

- 첫째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숙련의 증가다. 숙련된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신속함은 때때로 놀랍다.
- 둘째, 한 일로부터 다음 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덜 낭비된다. 소(小)자작 농지를 경작하는 직조공은 천을 짜는 일을 그만두고, 농기구를 가져와서, 들판으로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한 일에서 다른 일로 옮길 때 그들이 적절한 마음의 상태에 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 혼란들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전문화는 전용 기계류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제조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극적으로 줄인다. 종종, 근로자들 자신들이 노동절약적 장치를 발명했지만, 다른 개선들은 기계 제작자들로부터 왔는데,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동업자들의 전문가 집단이다.

3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장, p. 13, 문단 1.

분업은 명백히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고도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 참으로, 심지어 가장 단순한 물건의 생산조차도 수천의 사람들의 협동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양털 외투는 목동, 양털을 가려내는 사람, 양털을 빋는 사람, 염색업자, 실 잣는 사람, 짜는 사람, 그리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양털을 자르는 데 필요한 큰 가위도 광산업자들과 철공들의 작업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양털의 수송은 선원, 조선공, 그리고 돛 꿰매는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리스트는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날품팔이 몸을 감싸는 양털 외투는, 그것이 조잡하고 거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공동 노동의 작품이다. 목동, 양털을 가려내는 사람, 양털을 빋는 사람, 염색업자, 양털을 열레빗질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 실 잣는 사람, 짜는 사람, 천을 바래고 다듬는 직공, 마무리는 직공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 이 소박한 생산조차도 완성하기 위해 모두 자기들의 상이한 기술들을 결합해야 한다.⁴

수천 명의 고도로 효율적인 전문가들의 이러한 협업은 매우 선진화된 경제 체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선진 국가들의 큰 부의 원천이다. 그것은 물건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되어 그것들이 더 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조차도 전문화가 없으면 완전히 입수 불가능할 광범위한 제품들과 서비스들에 그것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⁵

4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장, p. 22, 문단 11.

5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장, p. 22, 문단 10.

교환으로부터의 상호 이득

전문화는 물물 교환하고 화폐 교환하려는 타고난 인간 경향에서 발현했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자기들이 마음이 선량해서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답례로 줄 준비가 되어 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정찬을 기대하는 것은 고깃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으로부터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가 아니라 그들의 자애(自愛)에 말을 걸고, 결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득에 관해 이야기한다.⁶

‘자애(self-love)’나 ‘자기 이익(self-interest)’이라는 말로, 스미스는 ‘탐욕(greed)’이나 ‘이기심(selfishness)’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전적으로 타고나고 참으로 지당한 우리 자신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염두에 두고 있고 《도덕 감정론》에서 그는 그것을 ‘분별(prudence)’이라고 부른다.⁷ 그리고 그는 ‘정의(justice)’—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가 건전한 인간 사회에 기초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교환을 통해서—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6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2장, pp. 26-7, 문단 12.

7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1절.

다. 그리고 거래는 우리 양쪽 모두를 더 낮게 만들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더 낮게 평가하는 어떤 것을 희생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통찰이다. 스미스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세계와 같이, 대부분의 재화들이 다른 재화들과 물물 교환되기보다 화폐와 교환되었다. 화폐는 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오직 판매자만이 그 과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화폐가 국가, 성시(城市), 혹은 심지어 직업에서도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광대한 망의 거래 제한들을 창출하게 된 관념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교환의 편익이 상호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제한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환으로부터의 이러한 이득들은,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교환을 하는 타고난 마음씨는, 분업을 자극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만드는 것의 잉여를 축적할 가치가 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여, 어떤 특정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재능을 통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만드는 데나, 집을 짓는 데나, 가죽을 다듬어 곱게 하는 데나, 금속을 세공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간이 있는 원시 사회를 상상해보자. 만약 그가 그 전문가 솜씨를 통하여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다. 그래서 각자는 그 다음에 자기의 효율적인 전문가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효율적인 생산자들과의 교환으로부터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대장장이는 잉여 칼을 살것 제조인의 잉여 화살과 거래하고, 제혁업자는 의복을 건축업자의 오두막과 교환한다. 각각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혼합하게 되고,

그것들 모두는 능숙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된다.

심지어 가장 닳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비록 그들이 어떤 대단한 자비의 감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자기들이 하는 교환으로부터 개인적인 편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더 넓은 시장은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우리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우리를 전문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기 위해 보존하는 잉여를 증가시키게 한다는 점이 다. 그 전문화가 정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교환이 가능한 정도에—즉, 시장(market)의 범위에—달려 있다.⁸

약간의 거래들—예를 들면, 짐꾼의 직업—은 빈번한 일을 제공하는 충분한 고객들이 있는 큰 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척도의 다른 끝에서, 외딴 스코틀랜드 고지(Highlands of Scotland)의 각 가족은 자신이 농부도, 푸줏간 주인도, 빵 굽는 사람도, 양조업자도 그리고 목수도 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 시골 대장장이는 모든 종류의 철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시골 목수는 한꺼번에 가구장이도, 목공 가구 제조자도, 고기를 썰는 사람도, 수레 목수도 그리고 짐마차 제조자도 되어야 한다.

⁸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3장.

화폐와 가치

명백히 시장을 정말 확대하는 한 가지는 *화폐*(money)다.⁹ 전문화가 강한 상업 사회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별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환에 의존한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배고픈 양조업자가 목마른 빵 굽는 사람을 항상 찾아내야 한다면 교환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인간 사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 자신의 필요와 정확하게 반대인 어떤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교환 수단—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제품을 주고 기꺼이 받을 것이면서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어떤 제3의 상품—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호머의 시대에 그것은 소였다.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오피긴이 주)에서는 그것은 소금이다. 인도에서는 조개껍질이, 뉴펀들랜드에서는 마른 대구가, 버지니아에서는 담배가,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서는 설탕이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이 표준 통화가 되었다. 금속은 내구성이 있고, (소와 다르게) 필요에 따라 손실 없이 소량들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다음 다시 큰 양들로 재조립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래 단순한 구리 막대들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변적이었고, 사용할 때마다 그 양의 무게를 달아야 했다. 그래서 결국 금속의 중량과 순도의 표준을 보여주는 각인(刻印)이 고안되었다—이것이 최초의 동전들이다.

9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4장.

그러나 교환이 화폐를 통해 중개되건 아니건 상이한 제품들이 교환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value)*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하나는 사용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 가치(value in exchange)*이다. 물은 극히 유용하지만 교환 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대개 쓸모없지만 엄청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교환 가치, 이러한 가격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그것이 변동하게 하는 요인들을 결정하는 원칙들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미스가 그것을 하는 데 《국부론》의 여러 장, 특히 권 I, 제5장 제11장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과 다이아몬드 문제를 한계 효용 이론으로 해결할지 모른다.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해서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귀중하지만, 물은 매우 풍부해서 여분의 한 잔의 물은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쓸모없다. 또는 우리는 수요 분석을 사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도구들은 스미스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상품들의 교환 가능한 가치의 진정한 척도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이다.¹⁰ 우리가 파는 제품을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물건들을 만드는 노력을 아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거래할 때, 우리가 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다. 궁극적으로, 부는 돈이 아니다—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양이다. (물론, 어떤 종류의 노동은 다른 것들

10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5장.

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거나 더 많은 독창성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교섭으로 조정될 것이다.)

많은 주식자들에게, 이것은 거북하게도 생산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수요를 간과하는 조야한 노동 가치론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카를 마르크스를 노동에 관한 그의 형편없는 실수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가, 노동이 유일한 생산 비용이었던, 토지 혹은 자본 소유권 이전의 시대를 논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차후에 연구하지만 토지와 자본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수요도 무시함으로써, 그저 사물을 단순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그의 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최악의 경우 그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환 가치를 화폐로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화폐가 노동보다 훨씬 더 유형적이고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척도가 아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우리가 주화로 사용하는 금속은, 말하자면, 광산의 생산성과 운송비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가 변동된다. 노동은 여전히 실질 가격이다. 화폐 가격들은 단지 명목 가격일 뿐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더 많은 노고와 고생이 들 물건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부는 그들의 화폐가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토지

스톡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가 무료인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노동은 유일한 생산 요소다. 누구든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을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가격은 항상 수반된 노동을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비버를 사냥하는 것이 사슴을 사냥하는 것보다 노동이 두 배가 든다면, 한 마리의 비버는 두 마리의 사슴과 교환되어야 한다¹¹(비록 필요한 노동의 어려움이나 숨겨진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될 것이지만).¹²

수렵 사회에서, 노동의 전 산물은 노동자에게 속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자본을 획득하고 자본을 가지고 일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 때에는 다르다. 그때는 산물은 그들 사이에서—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주의 이윤으로—나누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윤은 임금과 다르다. 이윤은 고용주의 일이 아니라 그 생산에 고용된 자본의 가치를 반영한다.

《국부론》의 앞의 장들에서, 스미스는 ‘자본(capital)’ 대신 ‘스톡(stock)’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스미스는 나중에 ‘스톡(stock)’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아직 팔리지 않은 완제품, 그리고 차후의 소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화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자본(capital)’을 더 논하기 시작한다. 통상 오늘날 우리는 반제품, 미판매품, 비소비품의 어떤 ‘스톡(stock)’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자본(capital)’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다.

11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6장, p. 65, 문단 1.

12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5장, p. 49, 문단 4.

토지가 사적 소유 상태로 밀어 넣어질 때, 제3의 집단, 즉 지주들이 국민 생산물을 분배받는다. 식량, 연료, 그리고 광물은 이제 더 이상 단지 그것들을 수집하는 노동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주들은 생산물의 일부가 이제 지대로 자신들에게 송금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상이한 원칙들에 의해 보수를 받는 세 가지 생산 요소들이 존재한다. 밀의 가격은 부분적으로 지주의 지대,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돈과 장비를 제공하는 농부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가루의 가격에는,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 제분업자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해져야 하고, 비슷하게 빵의 가격에는, 빵 굽는 사람의 이윤과 그 빵 굽는 사람의 직원의 임금이 더해져야 한다. 생산적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을지라도, 비용은 항상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무엇인가로 분해된다.¹³

물론 이러한 수입 흐름들의 두 개 이상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될 수도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지주의 역할과 농부의 역할을 겸할지 모르고, 농부는 농부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을 겸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대, 이윤 그리고 임금의 어떤 혼합이 같은 사람에게 간다.

생산 비용과 시장 가격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임금과 이윤도 시장에 좌우되는 평균율로 되는 경

¹³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6장.

향이 있다. 상품의 가격이 그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시장에 가져오는 비용(지대, 이윤, 임금들)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 가격(natural price)이라 부르지 모른다.¹⁴ 만약 그것이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 판매자는 이윤을 본다. 만약 그것이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리면, 판매자는 손실을 본다.

그 용어는 구식이지만 ‘자연 가격(natural price)’이라는 말로 스미스는 단지 경쟁 하에서 ‘정상(normal)’ 이윤율을 포함하는 생산 비용을 말할 뿐이다. 이것은 가치가 제품에 투입되는 것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그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논하곤 한다. 이것은 ‘자연 가격’이라는 용어를 현대 용어로 옮기기 어렵게 하지만, 그저 ‘생산 비용(cost of production)’이라고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제품이 실제로 팔리는 가격은 시장 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공급과 수요—판매자들이 시장에 가져오는 제품의 양과 잠재적 구매자들로부터의 수요의¹⁵ 크기—에 달려 있다. 공급이 수요에 미달하면, 구매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고, 가격은 다투어 올라간다. 예를 들어, 만약 우유가 봉쇄되면, 생필품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반대로, 공급 과잉이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판매자들은 자기들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특히 만약 과일과 같이 제품이 상하기 쉽고 나중에 시장에 되가져올 수 없다면.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자연

14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7장.

15 스미스는 제품을 좋아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살 여유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유효 수요(effectual demand)라고 부른다. 오늘날 이 점은 이해되고 있고, 우리는 그저 수요(demand)라고만 말할 것이다.

가격과 시장 가격은 같아지고, 시장은 정확하게 청산된다.

만약 시장이 과잉 공급되어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으면, 이러한 생산 분야에서 계속적인 손실을 겪기보다 지주들은 자기들의 토지를,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스톡[자본]을, 그리고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을 철회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고, 시장 가격은 시장이 청산되는 자연 가격으로 다시 다투어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들은 이 이윤이 있는 생산 분야에 더욱 많은 자원들을 투입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량은 오를 것이고, 시장 가격은 다시 자연적, 시장 청산 가격으로 다투어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자동 조정된다. 가격은 항상 경쟁 하의 생산 비용에 끌리고 있고, 생산자들은 항상 고객들의 수요에 정확하게 맞도록 자기들의 제품의 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스미스의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다. 시장은 완전히 불가피한 체제이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때, 판매자들은 수요와 그러므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자기들의 자원들을 돌리고, 그리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다. 자원들은 어떠한 중앙 지도의 필요도 없이 그것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적용으로 이끌린다.

특수한 가격 요인

물론, 시장 가격은 여전히 생산 비용 위 아래로 변동한다. 예를 들어, 수확

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도 어떤 해에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밀, 포도주, 기름 또는 홉 열매를 생산하는데, 시장 가격은 이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다. 리넨 및 모직 옷감과 같은 다른 재화들의 생산은 이러한 종류의 변동을 덜 겪고, 가격이 더욱 안정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상(公喪 · public mourning)은 수습 기간을 끝낸 장색(匠色) 재단사들의 임금과 함께 검은 천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의 시장 가격이 그것의 생산 비용 이상으로 오를 때, 공급자들은 자기들이 이례적인 이윤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숨기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쟁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은 잠시 동안 여전히 높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제조 비밀은 더 오래 지속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통상의 비용의 절반으로 특별한 염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염색업자는 경쟁자들도 역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수년간 이례적인 이윤을 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가격이 오랫동안 자연 가격과 다를지 모른다.

다른 특별한 사정들도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랑스 포도밭들의 유리한 토양과 상황은 같은 이웃의 다른 것들보다 자기들의 지대를 한참 더 올릴지 모른다. 또는 다시, 독점권을 부여받은 공급자는, 그제 공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제의 신분을 제한하거나 어떤 직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정하는 법률들은 특정 직업들에게 자기들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사건들, 자연적인 원인들, 그리고 규제들의 결과로, 제품의 시장 가격은 잠시 동안 생산 비용 위에 머무르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생산 비용 아래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그 경우, 공급자들은 계속되는 손실에 직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아들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지 않을 수 없었던 고대 이집트와 달리—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저 물러나기만 할 것이다.

임금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토지가 소유자들에 의해 전유되고 자본이 고용주들에 의해 축적되기 전의 시대에는, 노동의 전 산물은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가 전유되자마자 지주들은 자기들의 토지를 사용하는 어떤 생산에 대해서도 한 몫을 요구하고,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고용주들도 똑같이 요구한다.

자기들 자신의 생산 활동들에 필요한 모든 스톡[자본]을 소유하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흔하지 않다. 보통, 근로자들은 생산적인 자산들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용인들이다. 그렇다면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의 계약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보통 우세하다. 그들이 더 소수이므로, 그들은 노동 시장을 조작해서 임금을 낮추기 위해 더 쉽게 연합할 수 있다. 그들은 쟁의 행위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이 근로자들의 연합체를 금지하지만, 고용주들의 담합은 어디든 있다.¹⁶

그의 저작들의 전체에 걸쳐서, 스미스는 그 당시의 보통 근로자들에 대해 큰 동정심을 보여주고, 상인들과 고용주들에게는 별로 동정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는 이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스미스가 시장과 자유 무역의 신봉자로서 고용주 편임에 틀림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종종 충격으로 다가온다. 스미스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이 부를 확산시키는, 그리고 특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그러므로 경쟁과 자유를 감소시키려는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의 노력이 저지되어야 한다고—믿었다.

그러나 노동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근로자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들 간의 경쟁은 임금을 다투어 올린다. 그렇지만 노동의 수요는 오직 국민 총생산이 오를 때만 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금이 오직 소득이나 자본으로부터만 지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주가 여분의 수입을 가질 때, 그들은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한다. 베 짜는 사람들이나 구두 만드는 사람들이 잉여 스톡[자본]을 가질 때, 그들은 수습 기간을 끝낸 장색들을 더 많이 고용한다. 만약 국민 생산이 정태적이거나 하락한다면 임금은 오를 수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유하고, 비옥하고, 부지런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였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가 오백 년 전 그것을 방문한 이래로 거기에서는 발전이 별로 혹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 땅은 여전히 경작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빈곤이 심지어 유럽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그것

16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8장, p. 84, 문단 13.

보다 더 큰 이유이다.

벨경도 또한 비옥한 국가이지만, 빈곤이 매우 만연해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분명히, 노동 빈곤층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국민 생산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그 책임을 우리는 동인도 회사의 압제에 돌릴 수 있다).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러나 영국의 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경제들에서는 임금들은 최저 생활비를 상회하는데, 하기야 그것들이 정말 다양하기는 하다. 예를 들어, 여름 임금은 더 높은데,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더 낮지만 비용이 더 높은 겨울에 대비해 저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한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다. 런던에서 노동의 통상 가격은 하루에 약 18펜스다. 에든버러에서 그것은 10펜스다. 스코틀랜드 시골 지역에서 그것은 8펜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보통 사람들의 음식—은 그것이 더 잘 자라는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비싸다. 만약 스코틀랜드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저임금과 높은 곡물 가격으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잉글랜드의 근로자들이 다소 풍요롭게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영국에서 임금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가격들은 전문화로 야기된 생산성 상승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감자, 순무, 당근 그리고 양배추는 40년 전에 들었던 비용의 절반이 든다. 리넨 및 모직 옷감은 더 저렴하고, 철물과 가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근로 빈곤층이 더 나

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도저히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불릴 수 없다. (비누, 소금, 양초, 가죽 그리고 술—주로 그것들에 대한 세금들 때문이긴 하지만—더 비싸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예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치품들이다.)

훨씬 태반의 구성원들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설마 번영하고 행복할 리가 없다.¹⁷

그리 나쁘지 않은 임금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복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리 나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들에게도 역시 이익이 된다. 임금이 높을 때, 근로자들은 더 잘 먹고 더 건강해진다. 그들은 또한 저축을 하고 자기들의 상태를 개선할 전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들게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질 때, 그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생산적일 것 같다.

자본과 이윤

고용주들이 자본에서 얻는 이윤은 노동의 임금보다 더욱더 가변적이고 측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시장 가격에, 경쟁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그리고 재화의 생산, 수송 그리고 저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

17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8장, p. 96, 문단 36.

들에 달려 있다.¹⁸ 그러나 이자율은 수익성의 대략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만약 사람들이 화폐의 사용으로부터 상당한 이윤을 벌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빌리기 위해 충분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의 증가는 더 많은 사업이 발생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윤을 줄이는 경향도 있다. 더 많은 자본 공급은 그것의 소유주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률과 차용인들이 그것의 사용에 대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이자율을 다투어 내린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 및 서인도 제도 식민지들에서는, 임금은 높고, 이자율도 마찬가지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윤도 역시 높다는 지표들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영토들에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작할 충분한 사람들이나 자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근로자들과 장비는 수요가 많고, 그러므로 그것들은 높은 가격에 팔린다. 물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새로운 식민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더 많은 한계 토지를 생산에 끌어들이야 하고, 이윤은 점차 떨어진다.

또 하나의 특별한 경우는 국가가 자신의 토질과 상황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게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경우일지 모른다. 인구가 가득차서, 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임금은 낮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자본화되어서, 고용주들 간의 경쟁이 심할 것이고, 이윤도 또한 낮을 것이다.

18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9장, p.105, 문단 3.

그러나 어느 국가도 아직 이런 정도의 부에 도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없는 것을 본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은 모든 종류의 새로운 사업 부문들과 고용 기회들을 야기한다. 그러나 스미스의 시대에 경제는 농업이 지배했고, 그는 잘못해서 토지를 그것의 비옥도를 넘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제 성장의 한계로 본다.

시장 임금률

어느 지역에서나, 노동이나 자본을 고용하는 순편익들은 모든 용도들에 걸쳐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이나 이윤이 벌린다면, 근로자거나 고용주들이 그 고용에 몰려들 것이다—그 결과 임금이나 이윤이 그 기준으로 다투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이한 작업 및 산업 분야들에서 실제로 얻게 되는 재정적 보상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고용의 보상들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때는, 순전히 재정적인 수익과 함께, 상이한 산업들의 비금전적인 비용들과 편익들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 첫째, 어떤 직업들은 다른 직업들보다 더 쉽고, 더 깨끗하고, 더 훌륭하지 모른다. 베 짜는 사람은 그 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재단사보다 더 많이 벌고, 대장장이는 그 일이 더 더럽기 때문에 베 짜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번다. 탄갱의 갱부는 더욱더 많이 버는데, 그 일이 어둡고, 더럽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푸줏간 주인들은 많이 받는데, 그 일이 잔인하고 불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 사형 집행인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다.

- 둘째, 어떤 직업들은 배우기가 어렵거나 비싸다. 그것들을 배우느라 소비된 시간과 노력은 행해진 일의 가격을 통해 만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숙련된 노동자는 미숙련 노동자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는다.
- 셋째, 어떤 직업들은 계절적이다. 건축업자는 서리나 모진 날씨에 일할 수 없고, 나쁜 계절에서의 일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좋은 계절에 충분히 벌어야 한다. 보통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4 또는 5실링을 벌지만, 이러한 이유로 건축업자들은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계절 동안 일주일에 7 또는 8실링을 번다.
- 넷째, 소득은 금세공인, 법률가 또는 의사와 같이 고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직업들에서 더 높다. 그들의 정직과 능력은 자기들의 고객들로부터 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
- 다섯째, 소득은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할 확률을 반영한다. 법률가들은 돈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법조계에 진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객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실패한 사람들의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의 엄청난 보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의 아주 드물고 아름다움도—그리고 그러한 직업들에서 그들을 고용하는 불명예도—반영한다.

다른 특별한 상황들도 역시 임금 및 이윤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 첫째, 그것은 그 직업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가들은 기존의 직업들로부터 새로운 직업들로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

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직업에서의 고용은 덜 안전하거나 유행의 변덕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될지 모른다.

- 둘째, 공급이나 수요에 특별한 변동이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전시에, 상선 선원의 임금은 한 달에 21 또는 27실링으로부터 오히려 40 또는 60실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해가 달라지면 밀, 포도주, 홉, 설탕, 담배 그리고 기타 작물들의 수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상인들이 버는 이윤도 역시 부득이 달라질 것이다.
- 셋째, 사람들이 한 개를 넘는 일자리를 가질 때 임금은 달라질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농장 노동자들은 보통 1 또는 2에이커의 토지를 받고, 자기들이 가끔 농부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보답으로 일주일에 2셉(1셉은 9.092리터—웁킨이 주)의 오토밀을 받는다. 이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급료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여유 시간에 아주 적게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일한다.

임금과 정치

임금과 이윤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상이한 고용들의 경제적 특성만이 아니다. 정치적 요소들도 역시 결정적일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직업들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다. 일정한 직업에서 개업할 수 있게 허가된 사람들이 더 적을수록 그들은 자기들의 서비스의 대가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동업자들은 도제의 신분을 결정하는 다양한 규칙들의 통과에 힘쓰으로써 이것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조레는 셰필드의 장인 칼 장수가 한 번에 한 명을 넘는 도제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노퍽의 베 짜는 사람, 잉글랜드의 모자 제조인, 런던의 비단 짜는 사람은 두 명을 넘는 도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도제 기간도 역시 매우 길어서, 보통 칠년이다. 이것은 대중을 조잡한 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그것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도제 숫자에 대한 제한과 같이, 그것은 다시 관련 직업의 임금을 높게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불행하게도, 생산자들에 대한 이러한 이득은 오로지 대중에게 더 많이 지불하게 강제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노동의 신성한 소유권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를 거부함으로써만이 달성된다.

직업 길드들이 자기들의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려고—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일반 대중의 이익에 거슬러서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촉진하려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것에서 자기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의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어떤 동업자들의 회원들의 공공 명부의 확립은 그들이 협력하는 것(과 물론 더욱더 자기들의 가격들을 올리고 시장을 제한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지적 직업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회원들을 위해 강제적인 복지 기금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률들은 그들이 협력해야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직업들이 정책을 다수결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자발적인 담합보다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¹⁹

19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0장, 제2부, p. 145, 문단 30.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흥겹게 떠들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별로 같이 만나지 않지만, 그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간계로 끝난다.²⁰

사업들에 대해 유일하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규율은 고객들을 잃을 수 있다는 그들의 두려움이다.²¹ 고객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 시장은 아무리 많은 공식적인 규칙들—그것들은 너무나 자주 그것들이 공언한 의도와 반대 결과를 낳는다—보다도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공공 정책은 때때로 직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조장하여 직업의 소득을 떨어뜨린다. 공적 연금, 장학금, 장려금 등이 이런 효과를 나타낼지 모른다.

셋째, 법은 노동과 자본이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순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리넨, 비단 그리고 양털을 짜는 기술들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만약 이러한 산업들 중 하나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그것의 구성원들은 빨리 재훈련하여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직업들은 그들에게 이런 근로자들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도제 제도에 관한 규칙과 같은, 법적인 권력을 확보했다. 마찬가지로, 각 교구에게 자기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을 책임지게 한 구빈법으로 교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들로부터 이사회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을 꺼려하였는데, 설사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20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0장, 제2부, p. 145, 문단 27.

21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0장, 제2부, p. 146, 문단 31.

기꺼이 찾는다 하더라도 그랬다.

토지와 지대

세 번째 생산 요소는 토지이고, 지대는 토지가 국민 생산물에 기여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²² 지대는 얻기 위해 부담을 져야 하는 임금이나 정성 들어 축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자본의 이윤과 다르다. 그것은 지주의 어떠한 보살핌과 노력보다도 단지 그의 소유권 때문만으로 파생된 것이다. 게다가, 지대는 심지어 개간되지 않은 땅에도 부과된다. 자신의 토지가 켈프(kelp) 해변과 접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지주들은 자연적으로 씻기는 이 유용한 해초를 수확하는 사람들에게—그들이 자기들의 밭밭에 지대를 부과하듯이 확실히—지대를 부과한다.

지주들에 대한 자신의 논의에서,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광대한 토지를 지배한 스코틀랜드 족장들과 귀족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의 많은 것은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 둘러막히고 있었다. 그리고 몰수당한 자코뱅파(혁명혁명으로 퇴위한 제임스 2세 및 그 자손을 복위시키려 한 일파—웁킨이 주) 토지들은 새로운 소유주들에게 양도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마 스미스가 지주들을 ‘자기들이 결코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계급으로서 경멸해서 보았을 것이다.

지주들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지대를 받는다. 임금이나 이윤이

22 *The Wealth of Nations*, 제11장.

높을 때, 지대는 자연적으로 따라간다. 그들에겐 다행스럽게, 거의 어떤 토지든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심지어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버려진 황무지들조차도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생산한다. 바꿔 말하면, 토지는 지주에게 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잉여를 항상 생산한다. 매우 비옥하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예를 들어, 읍이나 그것의 시장들에 가까운) 토지는 더욱더 높은 지대를 낳을 것이다.

물론, 토지는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과 생활공간도 제공한다. 다시 한 번, 토지는 예를 들어 동물의 가죽으로부터 의복의 잉여를 항상 제공할 수 있다. 북미의 원주민들은 아마도 아주 많은 모피들을 가지고 있어서—담요, 총 그리고 브랜드를 주고 이것들을 간절히 얻고 싶어 했던 유럽인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그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다버려지곤 했을 것이다.

부유한 가족은 가난한 가족보다 더 많은 식량—비록 그것이 더 질이 좋을지 모르지만—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스스로 그것을 재배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얻은 지대라는 형식으로—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 주택 그리고 사치스러운 개인용품에 대해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자들의 넓은 대저택들과 멋진 옷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오두막집과 몇 안 되는 누더기 옷들과 비교해 보라.

부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잉여를 이런 종류의 사치품들과 기꺼이 교환하

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을 얻기 위해 교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수요를 똑같이 기꺼이 공급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전문화하는데, 이것은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올리며, 건물, 의복, 가구, 연료, 광천수, 보석—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온갖 편의—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한다. 그러나 물론 여전히 지주들은 자기들의 몫을 받는데, 왜냐하면 모든 그런 농장들, 산림들 그리고 광산들이 그들에게 지대를 낳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생산의 모든 부분이 지대, 임금 그리고 이윤을 반영한다는 자신의 원리에 근거하여, 스미스는 경제의 온갖 다양한 행위자들—지주들, 근로자들 그리고 고용주들—이 사실상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들의 상호의존은 생산을 넘어선다. 재화들이 교환되기 위해 생산되므로, 그것들은 모두 그 결과의 평가와 분배에도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기능하는 경제 체제 안에서 재화들이 모두 아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교환되고, 사용되고, 대체되는 막힘이 없는 흐름 체제의 부분들이다—그리고 자원들은 그것들의 최상의 용도로 끌어당겨진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현대적인 이해이다. 그것은 엄청난 이론적 혁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의존은, 스미스가 이제 계속 설명하듯이, 어떤 경제 행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상이한 요소들의 자기 이익

우리가 보았듯이, 법률들과 규정들은 특정 집단들의 이익과 참으로 대중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고용주들이다. 지주들은 그러한 조치들의 결과를 이해할 것 같지 않다. 소득이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노력의 적용에서보다 단순한 소유권에서 유래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너무 게으르고 무지하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한, 사회의 일반 이익은 결정적이다. 노동자들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가장 비참하게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사회가 번영할 때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교육이 빈약하고 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결과로, 그들은 사회의 이익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생존하려고만 애쓰느라, 그들은 공공 정책을 생각하는 데 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는 공공 토론에서 멀리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다르다. 그들의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경제가 번영할 때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익은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축소하는 데 있고,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능숙하다. 계획과 관리가 자기들의 사업에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편익을 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조치들을 촉진할 지식, 연줄 그리고 정신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적 편익은 대중의 희생으로 생기는데, 대중은 시장들이 왜곡되고 경쟁이 축소될 때 고통을 겪는다. 그러므로 자본의 소유주들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때, 그것은 최대한으로 면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 이익이 대중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대중을 속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얻는 집단으로부터 온다.

이러한 주문으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새로운 상업 법률이나 규정의 제안도 항상 아주 조심해서 경청해야 하고, 가장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심하기도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가 아니면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익이 대중의 이익과 결코 꼭 같지 않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대중을 속이고 억압하는 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서 많은 경우 대중을 속이기도 했고 억압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주문으로부터 생긴다.²³

23 *The Wealth of Nations*, 권 I, 제11장, 장의 결론, p. 267, 문단 10.

권 II: 자본의 축적

선진 경제에서, 우리의 필요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공급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전에 보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잉여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베 짜는 사람들은 자기의 베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도구와 재료를 얻을, 충분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자기의 천이 완성되고 시장에 운송되어 판매될 때까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전문 직업들에 착수할 수 있기 전에—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나타나는 큰 생산성 이득을 손에 넣을 수 있기 전에—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에서 전문화가 더 클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은 경제 성장을 조장한다. 그것은 선순환이다. 자본의 증가는 전문화를 촉진하고, 전문화는 더욱더 큰 잉여를 창출하며, 이 잉여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장비에 재투자될 수 있고, 새로운 장비는 또 다른 전문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²⁴

자본의 구분

자본은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래 소득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²⁴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서론, pp. 276-7, 문단 2-4.

부분이다. 이것은 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고정 자본이거나 그렇지 않은 유동 자본이 될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즉각적인 소비를 공급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소비에 쓰려고 하는 재화의 재고, 어떠한 원천으로부터건 소득, 그리고 아직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의복이나 가구 같은 재화의 재고를 포함한다.

스미스는 사실상 ‘스톡(stock)’이 ‘자본(capital)’과 기타 ‘스톡들(stocks)’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이것을 현대의 전문용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capital)’이 최상의 일반적인 용어인 듯하다. 또한, 스미스의 정의는 수입을 포함하지만, 현대 경제학자들은 포함하지 않을 것인데, 하기야 수중의 현금, 진행 중인 작업 그리고 고정 및 유동 자산은 오늘날 자본 항목으로 포함된다.

화폐

비록 우리가 흔히 개인의 소득을 화폐로, 금 혹은 은 조각들의 특정 양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화폐 그 자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²⁵ 화폐는 단지 교환의 도구, 국가의 생산물을 시장에 가져가는 것을 돕는 하이웨이일 뿐이고, 그 자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진정한 부는 그 돈이 구매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주화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부와 화폐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오늘 한

25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2장.

기니(guinea)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내일 바로 그 기니를 쓸지 모르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 날 바로 그 기니를 쓸지 모르고, 세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래서 유통 중인 화폐의 양은 명백히 국가의 총 소득보다 훨씬 더 적다. 국민 소득은 사고 팔린 재화의 양이지, 그 제품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우연히 사용되는 금속 조각들이 아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다시 중상주의자들에 도전하고 있고, 화폐가 부라는 통념을 떨쳐버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믿기로, 국가들이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화폐의 유출을 제한하려고 함에 따라 많은 정책 오류를 발생시키는 반면, 사실상 무역이 활기차고 자유로울 때 부가 증가된다.

그러나 화폐는 몇몇 중요한 효과들을 정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본을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게 만든다. 상인들이 예비의 필요를 위해 따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는 현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 자본(dead capital)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은행업은 그 자본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더 열심히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은행들이 금과 은을 종이 은행권으로 대체하는 곳에서는, 그것은—상업적 하이웨이의 속도를 올리고 국가의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이 비생산적 자본이 이전보다 더 쉽게 소생될 수 있게 하고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의 금 및 은 재고가 감내할 수준 이상으로 자기들의 은행권을 남발할 유혹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 은행들이 소액 은행권들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들 간의 경쟁은, 은행들에게 자기들의 은행권 발행의 규

모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어떤 한 은행에의 예금 인출 선택도가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며, 자기 고객들이 다른 은행들로 가는 것을 피하도록 자기들의 초점을 자기 고객들에 맞추어서, 대중을 보호한다.

스미스는 법정 불환 통화(fiat currency) —정부가 그저 법화라고 선언하고 (어쨌든) 대중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할 뿐인 지폐와 주화—이전 시대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의 시대에, 은행들은 고객들의 금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은행권들을 발행할 수 있었고 거래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금속을 여기 저기 옮겨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은행들은, 모든 은행권 소지인들이 동시에 자기들의 금 조각을 요구하지 않을 확률에 의존해서, 심지어 자기들의 금고에 금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은행권들을 발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어느 은행이 이러한 불안이 없는 수준을 넘어 은행권들을 납발한다면, 그것은 은행의 준비금이 소진되기 전에 은행권 소지인들이 자기들의 은행권들을 현금화하기 위해 돌진함에 따라 은행에의 예금 인출 선택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가 쓰기 직전에 이러한 종류의 중요한 스코틀랜드 금융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에 민감했다. 그는 경쟁이 일반적으로 은행들을 신중하게 할 것이지만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규제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는 공익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를 받아들인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다만 특수 이익을 옹호하는 규제들일 뿐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어떤 노동은 작업을 하는 것의 가치를 증가시킨다—예를 들어, 제조업자의 노동은 어떤 품목에 가치를 더하도록 작용하고, 후자는 그 다음 이익을 보고 팔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ur*)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이후 얼마간 지속되는 판매 가능한 어떤 것을 생산한다. —하인의 노동과 같이—다른 노동은 어떤 것에도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소비되고, 판매 가능한 어떤 것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비생산적 노동(*unproductive labour*)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은 다수의 제조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부자가 된다. 그는 다수의 하인들을 유지함으로써 가난해진다.²⁶

이러한 종류의 노동도 여전히 가치를 가지며, 이것은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군대와 사법부는 대중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직업들은 명예롭지만, 오늘날의 그들의 노동은 내일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 올해, 군대는 어떤 적대적인 지역에서 안보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다음 해에도 그들은 여전히 바로 그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범주의 비생산적인 근로자들에는 목사, 법률가, 의사, 배우, 광대, 음악가 그리고 무용가가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하자마자 곧 없어지고, 판매 가능한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 비생산적인 노동은 대부분 토지의 지대와 스톡의 이윤으로부터 지원된다. 보통 근로자들은 자기

26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3장, p. 330, 문단 1.

들에게 쓸 임금도 부족하고 시간도 별로 없다.

제품이나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은 또 하나의 스미스 혁신이고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혁신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를 더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비생산적(unproductive)'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당히 오해하기 쉽게 한다. 부유한 지주의 하인이 순전한 소비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사, 작가, 작곡가, 의사, 그리고 심지어 법률가의 서비스도 서비스가 수행된 후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고 향유될 수 있다. 그들이 생산하는 지식, 아이디어, 음악, 건강 그리고 법률은 무형적이고 판매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비생산적'이라고 거의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스미스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소비될수록, 우리에게는 미래 투자를 위해 더 적은 소득과 자본이 남겨진다. 그 때문에, 다음 해의 국민 생산은 더 낮아질 것이다. 미래 소득은 우리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에 의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저 자본을 유지하기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축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재료와 장비는 항상 수리되고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저축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수입을 비생산적인 고용인들에 소비한다면, 우리는 현재 소비를 위해 우리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다. 이것은 낭비이고, 만약 그것이 지속하면, 파멸에 이름에 틀림없다.

중상주의자 견해는 만약 모든 지출이 국내 경제의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어떠한 금이나 은도 해외로 보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본금을 꺼내어 수입 이상으로 돈을 쓰는 것(dis-saving)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의 화폐의 양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부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비록 국가의 화폐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손해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이 유지되는 대신 소비되고 있다. 미래 소득 증가가 자본의 축적에 달려있으므로, 미래 소득은 불가피하게 더 낮아질 것이다.

자본은 또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통해서도 낭비될 수 있다. 다시, 이것은 국가의 금 및 은 저장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그것의 미래 생산 능력을 줄인다. 농업, 광업, 어업, 상업 또는 제조업에서 모든 실패하는 사업은 국가의 생산적 기금들의 몇몇을 다 써 버린다.

그러나 국가는 사인들의 낭비나 무분별한 투자에 의해서 결코 망하지 않고, 오직 공공 기관들의 그것에 의해서만 망한다.²⁷ 보통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자기들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자기들이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소득은 비생산적인 고용인들—사람이 많고 화려한 궁전, 종교 시설, 대함대와 군대—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납세자들의 노동의 결과로 생활해 간다. 정부들은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공공 지출이 너무 커져서 납세자들이 그것의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기 위해 자본을 잠식해야 할 때는, 미래 소득은 불가피하게 감소한다.

27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3장, p. 342, 문단 30.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 경제는 놀랄 만큼 강건하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상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진보의 원동력인데, 정부의 낭비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데 종종 충분하다.²⁸

왕들과 장관들이... 사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는 척하는 것은...
.. 최고로 뻔뻔하고 건방지다... 그들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씩씩이가 해본 사람들이다...
. 만약 그들 자신의 낭비가 국가를 망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하들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²⁹

총 국민 생산은 오직 생산적인 근로자들의 수의 증가를 통해서나 그들의 생산성의 상승을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생산성은 오직 노동 자원과 자본 자원의 더 나은 관리를 통해서나 더 많거나 더 좋은 기계와 장비의 사용을 통해서만 증가될 수 있는데, 그 각각은 보통 새로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생산은 보통 더 많은 양의 자본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우리가 한 국가의 토지들이 더 잘 경작되고 그것의 제품들이 더 많아지며 그것의 거래가 더 광범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의 자본이 증가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가된 자본 축적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자본들을 도둑맞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안전과, 개인들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들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도록 격려해주는 자유와 더불어, 개인들의 사적인 저축과 투자의 덕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28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3장, p. 343, 문단 31.

29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3장, p. 346, 문단 36.

이자

사람들은 자기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자본이 결국 자기에게 반환될 것이며 채무자가 그것의 사용에 대해 일종의 지대를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채무자들은 자기가 자본과 이자 둘 다 상환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문이 남을 생산적인 용도들에 자기가 이자본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는 채무자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은 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빌리는 사람으로 양도되는 국민 생산의 어떤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³⁰

어떤 국가에든 더 많은 자본이 이용 가능할 때, 그것의 소유자들 사이에는 더 많은 경쟁이 있고, 채무자들은 그것의 대가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자본이 있을수록, 부과될 수 있는 이자율이 더 낮다. 자본의 증가와 그것의 더 낮은 비용은 생산적인 산업을 부양시킬 것이다. 더 많은 노동이 고용될 것이고, 임금이 다투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자기가 빌린 자본의 대가로 더 적게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비록 그들이 자기의 이윤율 역시 잠식되고 있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자율을 낮춘 것이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에서의 광산 발견에서 초래된 금과 은의 양의 증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 리 없다. 만약 그 밖에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은의 양의 증가는—풍부하

30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4장.

게 공급되는 모든 다른 상품과 같이—그 특정 금속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의 효과는 화폐 가격들이 오르는 것 같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상승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순전히 명목적이다. 가격들이 오를 것이지만, 이자율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스미스는—더 많은 화폐가 유통될수록, 그것이 가치가 더 적다는—화폐 수량설 견해를 가지고 중상주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다. 그의 직관적 견해는 모든 가격들이 영향을 받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화폐가 특정 장소에서 경제에 들어가고 가격 상승들이 그것으로부터 퍼져 나가서 도중에 차이들이 실질적인 오(誤) 배분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몇몇 왜곡 효과들을 정말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몇몇 국가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불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리 대금업의 해악을 막기보다 그것을 그저 증가시켰을 뿐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빌리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빌려줄 때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도 지불해야 한다. 이자율들을 그것들의 시장 가격 아래로 억제하려는 정부 노력들도 동일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들은 자기들의 돈을 그것의 사용이 지닌 값어치보다 더 적은 값에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그것의 온전한 가치에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위험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가격 통제가 암시장으로 이어지는 고전적인 예이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시장률 이하로 억제되는 곳에서는, 공급자들은 그저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버는 다른 시장들로 관심을 돌려서 부족을 야기할 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거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고객들은 판매자들에게 그들의 위협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더욱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주장들은 임대료 통제, 임금 통제 그리고 기타 가격 제한들에도 적용된다.

자본에 관한 추가적 성찰들

자본은 네 가지 다른 방법들로 사용될 수 있다.³¹ (농장이나 어장 같은) 어떤 자산들은 즉각적인 소비나 가공을 위한 원료 생산물을 산출한다. (기계류와 장비 같은) 어떤 것은 원료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된다. (2륜 짐마차와 배 같은) 어떤 것은 원산물이거나 제품을 시장에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소매업—원산물이거나 제품을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는 더 작은 양들로 나누는 것—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정육점 주인이 없다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통째의 황소나 양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부자들에게는 불편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

31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5장.

스미스는 여기에서 소매업자들이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여 어떤 소매업자들이 고객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을 구매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다른 소매업자들이 실패하게 하기 때문에 소매업자들이 규제를 필요로 했다는, 그의 시대에 흔하던 견해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매상인들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편견은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가치를 정말 더하고, 그들은 대중에게 봉사한다. 그들 사이의 경쟁은 어떤 사람들을 폐업하지 않을 수 없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소비자를 해칠 수 없다. 경쟁은 그들에게 압력—독점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가격들을 억제한다. 규제가 없으면 어떤 소매업자들이 고객들을 속여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사게 할지 모른다는 주장은 허울만 좋은 주장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과음하게 하는 것은 선술집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선술집들에 일을 주는 것은 음주 성향이다.³² 소매업은, 어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따른다.

농업에 고용되는 자본은 가장 생산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자연이 인간 노동과 나란히 작동하여 농작물이 열매 맺기 때문이다. 미국 식민지들은 대개 자기들의 자본이 이 고도로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이문이 더 적은) 상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자본을 제공하게 했다. 미국의 제조품들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되는데, 영국의 상인들의 자본에 의해 채원

32 *The Wealth of Nations*, 권 II, 제5장, p. 360, 문단 7.

이 조달되는 무역에서 그러하다. 심지어 이 대서양 횡단 무역에서 고용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상점들과 창고들조차도 영국 소유이다. 만약, 현재의 불화의 결과로, 미국인들이 이 무역의 중지를 명하고 자기들의 자본을 국내 제조업으로 전환한다면, 자기들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주어질 효과적인 독점과 자기들이 직면하는 비용 증가로 그들은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경제적 진보는 오로지 잉여를 생산해서 그 다음 그것을 다른 국가들과 교환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서만 생긴다. 국가들은 만약 자기들이 자급자족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 무역 장벽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면 상태가 더 좋아진다.

권 III: 경제 성장의 진행

선진 사회의 주요 상업은 시골과 읍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업이다. 어떤 의미에서, 읍들은 자기들의 전체 부를 시골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부가 시골을 희생시키고 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쪽 다 이익을 얻는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도구와 가정용품을 만드는 데 읍의 숙련공들을 필요로 하고, 읍들은 자기들의 제품을 위한 시장들을 필요로 한다. 읍의 부와 인구가 더 클수록, 시장이 더 커지고, 시골이 더 많이 이익을 얻는다.

농업의 우선성

생계가 편의와 사치보다 우선하므로 시골의 경작과 개량은 읍들의 성장 이전에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읍들은 오직 시골이 잉여를 생산하는 한에서만 성장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윤들이 같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해외 무역보다 토지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토지와 지대는 많은 사고들과 불확실성들에 처하기 쉬운 제조업이나 무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지주들은 시골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누린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대장장이, 목수, 수레 목수와 쟁기 목수, 석수와 벽돌장이, 제혁업자, 제화공 그리고 재단사와 같은 기술공들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람들은 그 대신 식량과 원료들을 필요로 한다. 읍과 시골의 거주자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들은 오직 시골의 번영과 수요에 비례해서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배분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것의 많은 위험들을 가지고, 첫째로 토지에, 그 다음엔 제조업에,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만 해외 무역에 주입하기를 선호한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처럼 토지가 광대하고 비옥한 곳에서는, 자본은 주로 농업 개량으로 들어간다. 토지가 충분하게 개량된 국가들에서는, 더 많은 자본이 제조업으로 전용된다. 어느 경우든, 수입-수출 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앞선 다른 국가들에 남겨진다. 사실상, 북아메리카는 그것의 자본이 농업에 들어간 반면 그것의 무역이 영국 상인들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었다는 바로 그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다. 고대 이집트의, 그리고 중국과 힌두스탄(Indostan · 인도 북부 지역)의, 부는 비록 국가들의 무역이 대개 외국인들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할지라도 국가들이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읍의 융성

읍들은 시골에 의존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또한 시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첫째, 그것들은 시골의 농산물에 대해 큰 시장들을 제공한다. 둘째, 읍들의 부자들은 시골의 토지를 구입하고 개간한다. 부유한 상인들은—비록 자기들이 또한 능률적인 농업 개량자이기도 하지만—자신들을 [넓은 토지를 갖고 큰 집에서 사는] 시골 신사(country gentlemen)라고 자부한다. 셋째, 읍들의 상업은 질서와 좋은 정부—시골

로 퍼져 나가는 원칙들—를 촉진한다.

읍민들은 시골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들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했다, 점차 그들은—부분적으로는 약한 왕들이 그들을 왕과 상인 양쪽 다 경멸하는 부유한 토지 소유 귀족들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만들려는 욕망의 도움을 받아—특권과 자치를 얻었다. 그렇게 하여 질서와 정부, 안전과 자유는 읍들에서 생겨났고, 제조업과 상업이 확대되었다.³³

그러나 제조업 이전의 시대에는 대지주들이 자기들의 잉여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는 하인들과 식객들의 많은 종자(從者)를 유지하는 데 자기들의 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거대한 권위를 부여하였고, 그들은—어떤 멀리 있는 왕보다—자연적으로 주요 입법자 및 행정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은 독단적일 수 있는데, 봉건법(feudal law)의 도입은, 왕으로부터 가장 작은 지주로 내려 오기까지, 권리들과 의무들의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봉건법은 아직도 대영주들의 독단적인 권력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조업과 상업의 융성은 그 일을 해냈다.³⁴ 일단 제품들이 이용될 수 있게 되자, 영주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잉여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수천 명의 하인들을 유지하는 데보다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들과 인상적인 사치품들에 쓰기 시작했다.

33 *The Wealth of Nations*, 권 III, 제3장.

34 *The Wealth of Nations*, 권 III, 제4장.

그러나 그 결과 대영주들은 자기들의 전 권력과 권위의 원천을 잃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하인들이 자기들의 영주에게 의존하는 만큼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고객들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충성은 더욱 나누어져 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 버클 한 쌍이나, 그만큼 하찮고 쓸모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연간 천 명의 부양이나, 혹은 같은 것이지만, 부양의 가격을 버렸고, 그것과 함께 그것이 자기들에게 줄 수 있었던 전 영향력과 권위를 버렸다.³⁵

하인들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농장들은 커졌고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되었다. 이것에 자극되어 지주들은 자기들의 지대를 올렸지만, 보답으로 소작인들은 더 많은 안전을 요구했다. 소작인들은 더 독립적이게 되었고, 지주들은 자기들의 독단적인 권력을 잃었으며, 질서 있는 사법 제도가 발전하였다. 도시들의 상업과 제조업은 시골의 향상과 경작의 원인이었다.

이 역사는 추리적이지만, 스코틀랜드 대(大)족장들의 전통적인 봉건 권력의 붕괴는 스미스에게 자기 자신의 시대의 실제의 예들을 제공했는지 모른다.

35 *The Wealth of Nations*, 권 III, 제4장, pp. 418-9, 문단 10.

임대차법과 농업 효율성

영국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주어지는 상당한 안전이 농업의 성공과 국가의 위엄에 기여했다.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임대차 기간은 너무 짧아서 개량을 장려할 수 없었거나, 불특정의 서비스들이 지주에게 전달되는 것을 수반했거나, 조세를 초래했다(잉여를 생산하는 프랑스 농부들은 잉여가 거의 모두 타이유[taille · 왕이나 영주의 지배 아래 있는 신하와 토지에 부과한 조세]로 징발된다).

작은 소유자들은 자기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데 큰 소유자들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욱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장자 상속의 지속은 여전히 큰 토지의 분할을 막았다. 토지는 소득과 향유의 한 원천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 후원, 그리고 보호의 기초로도 간주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 이후의 위험한 시대에는, 토지가 손대지 않은 채 보존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됐다.³⁶ 이 전통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토지는 거의 시장에 나오지 않고—아마도 스코틀랜드의 육지 지역의 1/3은 이 체제 아래서 상속인이 한정될 것이다—그것이 시장에 정말 나오는 곳에서는, 그것은 오직 높은 독점 가격에만 팔린다. 이 체제는 토지 이용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비용-효과적 토지 개량은 어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목과 이윤에 대한 바로 그 면밀한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큰 토지의 대(大)소유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작은 소유지들을 경작하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것들에 훨씬 더 적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체제의 비효율이 매우 커서 유럽에서는 인구가 두 배로

36 *The Wealth of Nations*, 권 III, 제2장.

되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

장자 상속이 지배적이지 않은 북아메리카에서는, 인구는 매 25년마다 두 배로 뛴다. 토지에 공개 시장이 있고,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는 데는 50 내지 60파운드면 충분하다. 만약 유럽의 소유지들이 소유주가 사망할 때 아이들 사이에 똑같이 나누어진다면, 토지는 대체로 팔릴 것이고, 더 많은 토지가 시장에 나올 것이며, 가격들은 누그러질 것이고, 토지의 생산성은 오를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는 농업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요소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독일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농노들은 토지에 묶여 있고 토지와 함께 사고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인적 재산을 얻을 수 없는 농노나 노예는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일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생산적인 일은 그들에게서 강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노예 노동이 싼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덜 비용-효과적인 종류의 노동이다. 노예제는 영국 식민지들의 설탕 및 담배 플랜테이션들에 흔하지만, 토지의 규모와 비옥도가 노예의 비용을 감당할 만하게 한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그렇다.

권 IV: 경제 이론과 정책

경제학이란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득을 발생시키고 국가에게 수입을 공급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 두 가지의 주요 이론들이 있는데, 중상주의 체제와 중농주의 체제이다.

중상주의 체제

중상주의 체제(mercantile system)는 부가 화폐—금과 은—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사람이나 부유한 국가는 많은 화폐를 가진 사람이나 국가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정책은 많은 화폐량을 축적하고, 그것을 식민지들로부터 찾아내며, 그것을 국내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떠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³⁷

이러한 태도의 한 실례로서, 이러한 관점의 보급과 이러한 금속들의 가해진 중요성이 매우 커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금이나 은이 그 땅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였다. 똑같은 이유들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금과 은의 수출에 엄격한 규제나 무거운 세금을 가한다. 심지어 몇몇 옛날 스코틀랜드 법률들조차도 그것들의 수출을 막았다.

³⁷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1장.

물론 무역업자들은 이런 제한들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몇몇 수입품들에 대한 대금을 금과 은으로 지불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자기들이 수입품들을 가공 처리하고 그것들을 다른 곳에 수출하여 더욱더 많은 금과 은을 되찾아 와서 실제로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벌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으로 그 규칙들이 다소 완화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의 금과 은 수출의 금지는 금은괴(塊)가 아니라 금은화로 국한되었다. 네덜란드는 심지어 금은화 제한도 해제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은 해외 무역의 균형에 쏠렸는데, 왜냐하면 해외 무역은 만약 금과 은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면 금과 은의 순 유입량과 순 유출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국내 거래는—훨씬 더 중요함에도—무시되었는데, 국내 거래의 결과로 화폐가 국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국가를 떠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국내 거래가 국가를 결코 더 부유하게도 더 가난하게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들에서였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 무역에 대한 몰입은 부적절하다. 한 국가의 거래에서 금이나 은이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해외 무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는 국내에서 창출되고 소비된다. 국경을 넘는 금과 은의 이동은 전혀 대국을 파멸시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부가 오직 화폐에만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화폐는 단지 교환의 수단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때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그들이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다. 확실히, 금과 은은 어떤 다른 상품들보다 더 내구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그것들의 유용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내구성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기꺼이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수입하고 교환으로 그들에게 금속 제품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향아리들과 냄비들을, 그저 그것들이 더 내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굶어모을 정도로 바보 같지 않다. 그것은 완전한 자원 낭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나라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굶어모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역시 낭비—우리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부양하고 고용하는 데 필요한 가용 자원들로부터 나올 비생산적인 자본—일 것이다. 화폐는 단지와 냄비 같이 하나의 가정용품이다.

화폐가 부와 같다는 중상주의자 믿음의 오류를 이렇게 보여준 후에, 스미스는 이제 화폐가 해외로 새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상주의자들이 세운 무역 제한들을 공격하는 데로 옮겨간다.

무역 제한

—화폐에 관한 중상주의자의 혼동에 의해 유발된—수입품에 대한 금지나 높은 관세는 그 나라의 국내 생산자들이 본국 시장의 실질적인 독점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우(生牛)의 수입에 대한 금지는 국내 목축업자들에게 정육점 주인의 고기의 공급에 대한 독점을 준다. 모직물 제조업자들은 모직물 수입품에 대한 금지로부터 이익을 얻고, 비단 제조는 최근에, 많은 다른 상업들과 똑같은, 이득을 얻었다.³⁸

그러나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선진국에서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그곳에 동원되는 자본에 비례한다. 이것들과 같은 규제들은 이용 가능한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저히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들이 하는 전부는 산업을 한 고용에서 다른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자원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장 큰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 실로, 그들은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규제자보다 지역의 상황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면서 이것을 훨씬 더 낮게 판단할 것 같다. 그리고 규제자들에게 그러한 큰 경제적 권력을 주는 것은 그 자체 위험하다.³⁹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관한 유일한 언급은 위의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개인들의 사적인 그리고 참으로 자기 이익 추구적인 행동이 낳는 기능하는 사회적 질서—이 스미스의 저작에 가득 차 있는 반면, 이렇게 그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생략되어 있다.

만약 외국 재화가 국내 재화보다 더 싸지 않다면, 본국 시장의 독점을 국내 생산자들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무의미하다. 그와 반대로, 만약 외국 재화가 사실상 더 싸다면, 규제는 해로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집에서 만드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이다. 재단사는 자기 자신의 구두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구두 만드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들도 또한 자기들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생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비용이

38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2장.

39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2장, p. 456, 문단 10.

더 많이 들 것을 사들여야한다.

온실, 온상, 그리고 온벽(hotwall · 과일의 성장과 원숙을 촉진하기 위한 난방 송기관(送氣管)들이 제공되는 벽)을 써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좋은 포도들을 재배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아주 좋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데, 적어도 똑같이 좋은 것을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의 대략 30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저 스코틀랜드에서 보르도 산 붉은 포도주(claret)와 부르고뉴 산 포도주(burgundy)를 만드는 것을 장려한답시고, 모든 외국 포도주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인가?⁴⁰

무역 제한들은 또한 무역 수지 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옹호된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해외 무역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 그리고 한 국가가 자기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한, 그것은 자신의 자본을 저축하고 있고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한 국가는 여전히 자기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무역 수지 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잉여를 생산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무역 장벽과 부당한 무역 장벽

무역 제한들은 전 국가에 대한 세금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종종 ‘특별한

40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2장, p. 458, 문단 15.

경우(special cases)’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것으로 옹호된다. 예를 들면, 외국 포도주와 맥주에 대한 영국 관세들은 그것들이 취한 상태를 줄인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것은 놀라운 주장인데, 왜냐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포도주 생산 국가들이 유럽에서 가장 술 취하지 않은 국민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알코올이 때때로 남용될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양조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낫다. 그리고 어쨌든 관세가 프랑스보다, 영국 상인들이 자기들의 제품들의 더 나은 고객이라고 말하는, 포르투갈을 우대한다는 사실은 자기들의 정당화 근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그것은 이익 집단들이 대국의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의 예다.⁴¹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이웃을 가난하게 하려고 함으로써 번영할 수 없다. 국가는 자신의 이웃나라들이 가난한 경우보다 그들도 역시 부유하고 근면하고 상업적인 경우에 무역으로부터 부유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서 스미스는 어떤 교환에서건 승자와 패자가 있음에 틀림없다는 흔한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 국제 무역 정책의 면에서, 이것은 한 나라가 오직 다른 나라들에서 돈을 빼앗고 그들을 더 가난하게 함으로써만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물론 스미스는 양측 모두 자발적인 무역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못됐으며 그 정책이 역효과를 낳는다는 현대적인 견해를 옹호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한정된 상황에서 해외 무역에 대한 적어도 일시적인 제한들에 대해 약간의 정당화

41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3장, 제2부, p. 493, 문단 c8.

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는 지금 그것을 열거한다.

물론, 어떤 특정 산업이 국가 방위에 필수적일 때 관세를 옹호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해군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항해조례 (Navigation Act, 1651-1849)가 하나의 예다. 그러나 비용이 있다. 만약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팔러 오는 것을 방해 받는다면, 그들은 또한 사러오지도 않을지 모른다. 금수 조치는 그들을 덜 부유하게 할지 모르고, 혹은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거래 제휴를 맺어서 대신 자기들의 시장에서 살지 모른다.

—비누, 소금, 가죽 그리고 양초와 같이—만약 본국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물품이 어떤 이유로 과세된다면 또한 수입되는 물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논거가 있다. 이것은 국내 생산자들과 외국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을 평등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책이, 국내 생산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듯이, 우연히 본국 산업들과 경쟁할지 모르는 모든 해외 수입품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물건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 그리고 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특별히 나쁘다.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무역 제한을 중단하도록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보복적인 수입 관세나 금지를 옹호할 논거가 있을지 모른다. 협상해서 그러한 정책이 작동할 것 같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음험하고 교활한 동물인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보태는가?

어떤 사람들은 만약 무역이 관세나 금지에 의해 중단되었다면, 그것이 오직 천천히 회복돼야만 한다고, 자유 무역의 갑작스러운 회복은 파괴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해외 무역은 한 나라의 산업의 작은 부분이고, 어떤 파괴도 작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특히 만약 노동 시장 제한이 완화되면—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관세 환급, 장려금, 가격 통제 그리고 무역 특혜

—수출업자가 본국에서 지불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나, 재수출할 때 수입 관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관세 환급들은 산업을 그것의 자연적인 수준 너머로 증대시킬 수 없다. 원칙상, 그것들은 그저 활동을 조세가 없었더라면 그것이 있었을 곳으로 회복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런 조세 특권들에 관한 특정 규칙들은 너무 복잡해서 그것들은 사물들을 정말 왜곡시키고 종종 사기를 초래한다.⁴²

장려금—수출 보조금—은 장려금 없이는 이문이 남게 수출될 수 없을 산업 분야들에서 우리의 해외 무역을 증대시키려고 고안된다. 하지만 다시, 만약 무역 상인들이 장려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자본을 다른, 더 수익성 있는, 산업들에 고용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보조금은 단지 국가의 무역을 다른, 덜 이로운,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갈 뿐이다. 보조금은 대중에 대한 이중 과세다. 대중은 보조금을 재정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⁴²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4장.

납부해야 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상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⁴³

보조금은 또한 사기에도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낱 혹은 훈제되지 않은 청어(white herring)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배의 선원이 나타낸 어업에서의 근면이나 성공보다 배의 용적 톤수에 따라 정해진다. 예상대로, 배들은 자기들의 어획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보조금을 극대화하도록 장비를 갖춘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은 지역 연안 어업을 망쳤고 필수 장비의 가격도 올려버렸다(예를 들면, 통의 가격이 3실링에서 6실링으로 두 배로 되었다.)

낱 혹은 훈제되지 않은 청어 어업에 대한 장려금은 용적 톤수 장려금이고, 배의 적재량에 비례하지, 어업에서의 배의 근면이나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배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장려금을 잡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너무 흔해졌다.⁴⁴

또 하나의 개입 형태는 가격 통제다. 곡물 생산은 그런 통제를 받기 쉬웠던 산업이다. 수확이 빈약할 때, 가격은 자연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그때 정부가 가격 한계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것은 생산자들이 곡물을 시장에 가져오는 것을 억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아주 빨리 매점하도록 부추겨서, 그 계절은 확실히 부족과 기근으로 끝날 것이다. 흉작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흉작을 완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43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4장과 제5장.

44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5장, p. 520, 문단 32.

농부들과 상인들의 무제한이고 억제되지 않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장 개입은 수입 특혜인데, 거기서는 특정 국가들에게 특정 재화들을 가지고 들어올 독점권을 주거나, 그것들을 다른 국가들이 직면하는 것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가지고 들어올 권리를 준다. 하나의 예는 포르투갈에게 통상(通常)의 관세의 2/3에 포도주를 영국에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수입 특혜가 수출국의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에게 명백히 이롭지만, 수입 특혜는 불가피하게 수입국에 불리하다—그것에 의해 수입국은 세계 경쟁에의 접근을 억제하고 결국 독점 수입업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식민지 무역 제한

국가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식민지들에 무역 제한을 가하기조차 한다. 중상주의 견해와 일치하여, 식민지를 설립하는 보통의 동기는 금과 은을 발견할 가망이다. 콜럼버스 이래로,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는 경건한 목적은 그 사업을 신성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동기는 보물의 희망이었다. 그것은 오제다(Ojeda), 니쿠에사(Nicuesa), 그리고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Vasco Nuñez de Balboa)를 다리엔 만(Darien · 파나마 동북부와 콜롬비아 서북부 사이에 있는 카리브 해의 만)으로, 코르테스(Cortez)를 멕시코로, 그리고 알마그로(Almagro)와 피사로(Pizarro)를 칠레와 페루로 가게 한 동기다. 하지만 보물의 탐색은 불확실하고 파멸을 초래하는 실행이다. 거기서 어떤 은, 금 혹은 다이아몬드 매장물이든 발견되기까지는 브라질들이 처음 정착된 이후 100년이 넘게 걸렸다.⁴⁵

그러나 보상들이 있다. 황무지나 인구 밀도가 낮은 토지에 건설된 식민지들은 어떤 다른 사회보다 더 빨리 부와 위대함으로 나아간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농업 기술과 기타 유용한 기술들을 가지고 온다. 그들은 정규 정부의 습관을, 그것을 지탱할 법 제도 및 행정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불할 지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세금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토지가 너무 넓어서, 심지어 이용 가능할 모든 손을 가지고도, 어떤 소유자도 그것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심지어 10분의 1도 그것이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소유자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간절히 모으고 싶어 하고, 그들의 일에 대해 그들에게 후하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임금이 토지의 저렴함과 결합되어 이내 노동자들은 지주들로 입신하게 되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후하게 지불하면서 자기들 자신의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순환은 계속된다.

새로운 식민지가 번창하기 위해서, 열쇠는 많은 좋은 토지와 자기 자신의 일을 관리할 자유인 것 같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은 어떤 다른 식민지들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토지가 아주 싸고, 노동이 그 결과로서 아주 비싸서,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영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이 자기 자신의 생산자들을 위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일정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별로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금지들은 정말 억압적이고 지탱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45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7장,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들에게 오직 본국과만 무역하게 강제하는 정책은 영국에게도 위험을 일으킨다. 그것은 영국의 자본을 다른 시장들로부터 빼어 그것을 식민지 무역에 집중시켰다. 그러므로 영국의 산업 중 부자연스럽게 큰 부분이 이러한 지나치게 자란 시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무역이 파괴될 위험은 영국 국민들을 그들이 스페인 함대나 프랑스의 침입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공포로 채웠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영국에게 식민지들과의 무역의 독점을 주는 법률들을 완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들과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은 독점이 자본에서 빼앗았던 많은 다른 용도들로 되돌아갈 것이다. 영구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무역 자유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82,000개 큰통(hogshead · 영국에서는 100-140 갤런들이)의 담배를 운반하고 그 다음 영국이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재수출하는 배들에 대한 갑작스런 무역 상실은 그 자체 주요 경제적 충격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중상주의 체제다. 그것은 큰 왜곡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식민지 무역 독점은 산업을 부양시키지 못했다. 참으로, 수익이 빈번하고 가깝기보다는 느리고 먼 시장으로 산업을 돌림으로써, 그것은 영국의 자본이 덜 생산적으로 작동하게 했고 실제로 소득을 낮추었다.

자본이 오직 소득이나 저축에서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의 자본이 더욱 느리게 축적된다는 것과 미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대도 역시 독점에 의해 낮아지는데, 왜냐하면 제

조업 이윤을 올림으로써 그것은 자본이 토지 개량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자본 축적도 낮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더 적어진다. 바꿔 말하면, 임금, 지대 그리고 이윤 모두는—그저 소수의 제조업자들만을 위해—독점에 의해 손해를 입는다.

독점에서 생기는 것과 같이, 부자연스럽게 높은 이윤율은 상인들의 타고난 검약을 파괴하는 것 같다. 저축하고 재투자하는 대신에, 그들은 대신 비싼 사치품들에 돈을 쓰고, 국가의 자본은 축적되기보다 소비된다. 예를 들면, 카디스(Cadiz · 스페인 서남부, 대서양에 면한 항구 도시)나 리스본의 상인들의 과대한 이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자본을 늘리지 않았고, 산업을 진흥시키지도, 그 두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을 완화하지도 못했다. 런던 상인들은 더 낮은 이윤율을 누리지만, 그래도 형편이 더 나은 것 같다. 암스테르담의 이윤율은 더욱더 빈약하지만, 그것의 주의 깊고 검소한 시민들은 런던의 시민들보다 더욱더 부유하다.

식민 정책에 대한 스미스의 관심은 전적으로 학구적이지는 않다. 그는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직전에 글을 쓰고 있다. 그는 오직 더 큰 무역 자유와 더욱 비례적인 정치 대표만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 당국에 조언하고 싶어 한다. 불행하게도 그의 조언은 너무 늦게 나왔다.

고대 로마가 자기를 방어하는 비용을 부담했던 동맹국들에게 시민권의 특권들을 부여하기를 거부한 것은 사회적 전쟁을 초래했다. 지금, 영국은 자신의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과세하기를 고집하지만, 그들에게 의회

대표를 거부한다. 이것은 불만을 초래했고, 미국인들을 평화로운 상인에게 투쟁적인 정치인으로 변질시켰다. 유일한 해결책은 영국이 식민지들에게, 그들이 공공 재정에 기여하는 것에 비례하여,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식민지들이 더 강해짐에 따라, 본국들이 그들과의 무역의 전 편익을 부당하게 강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결국 그들이 봉착하는 전부는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비용이다. 중상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자 이익이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의 전 목적은 실제로 소비이고, 정당하게 지배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이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오직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할지 모르는 한에서만, 돌보아야 한다.⁴⁶

중농주의 체제

경제학의 두 번째 이론 체계는 토지의 산물이 국가의 부와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암시한다. 그것은 사회를 첫째, 토지의 소유자, 둘째, 농부와 농장 근로자, 그리고 셋째,—그들이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보는—기술공, 제조업자 및 상인의 세 집단으로 나눈다.

⁴⁶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8장, p. 660, 문단 49.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건물, 배수 도랑 그리고 울타리와 같은 토지 개량에 쓰는 비용을 통해 국민 소득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농부들도 역시 경작, 종자, 가축 그리고 농장 근로자들의 부양에 대한 자기들의 지출을 통하여 국민 소득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는 제조업자들의 전반적인 기여는 영(零)이다. 그들의 노동의 편익은 그들의 임금, 재료, 그리고 도구의 비용으로 정확하게 상쇄된다. 그들은 토지 소유자들과 농부들이 생산하는 것의 특정 부분들에 가치를 더하면서 참으로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같은 양을 소비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밀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만, 그들은 또한 밀과 가축의 산물들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들이 단지 부를 재배열할 뿐이라는 의미에서 비생산적이긴 하지만, 이 계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에게 시장, 장비 그리고 제품들을 제공하여 여전히 생산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생산자들이 그들을 억압할 이유가 없다. 사실 그와 정반대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그들 사이에 더 많은 경쟁이 있고 그들이 공급하는 것의 비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계급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그들의 토지가 생산하는 잉여가 더 커지고, 비생산적인 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 체제에 따르면,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완전한 자유의 정책이다.

이 견해는 아마도 자유가 완전할 필요를 과장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가변적이고 때때로 몸에 해로운 식사에도 불구하고 인체는 여전히 완전히 건강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슷하게, 경제도 반자유주의적인 공공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멈

추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의 지도적인 옹호자인 튀르고는 선구적인 경제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의 의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스미스가 경제 체제를 인체에 비교한 것은 튀르고의 철학을 그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용어들로 반박한다.

그러나 중농주의 체제의 주요 오류는 기술공, 제조업자 그리고 상인을 무능하거나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본다는 것이다. 첫째, 그 이론은 이 계급이 자기 자신의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이 계급은 전혀 무능하지 않다. 둘째, 그들은 지속되고 나중에 팔릴 수 있는 것들에 실제로 가치를 정말 부여한다. 이것은 명백히 생산적인 노동이다.

이러한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적 체계는 더 나은 체계들의 하나다. 그것은 부가 화폐에가 아니라 한 국가의 생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자유를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본다. 무역 제한이나 특혜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정의의 규칙들만을 조건으로 하여,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자본과 노동을 다른 것들과 경쟁시킬 수 있게 된다. 자본과 노동은 자기들의 가장 이로운 용도들로 흘러 들어가고, 국가는 경제생활을 감독하고 지시할 어떤 필요도 덜게 된다. 실로, 완전한 자유의 체계는 국가에게, 방위, 사법 그리고 일정 공공사업들이라는, 돌봐야 할 단지 세 가지의 무만을 남긴다.

주권자는 어떤 인간 지혜나 지식도 결코 충분할 수 없을 의무,
사인들의 산업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직업들로 돌리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⁴⁷

⁴⁷ *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9장, p. 687, 문단 51.

권 V: 정부의 역할

방위 지출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자 필요한 비용은 방위, 즉 다른 사람들의 폭력이나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과 같은 사냥꾼들의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사냥꾼뿐만 아니라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전쟁 중일 때도 자기들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들을 부양할 자원들을 가진 왕이나 국가가 없다.

타타르 족이나 아랍 족 같은 유목 양치기들의 국가들은 전부 족장들이 있지만, 전사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양 떼들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양 떼들은, 그리고 전 국가는, 전사들과 동행한다. 그러나 그때 정복된 적들로부터 전리품을 손에 넣을 가망도 있다.

농업 시대에는, 사람들은 정착된다. 농장들은 전혀 포기될 수 없고, 그래서 징병 연령의 남성들은 전쟁하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 남는다. 씨앗이 땅 속에 있는 한, 그들 없이 지낼 수 있다. 자연이 대부분의 일을 할 것이다.

제조업 시대에는, 사정이 다르다. 사람들이 대장장이, 목수, 또는 베 짜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일을 그만둘 때, 그들의 소득은 즉시 고갈된다. 그들

이 자기들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고, 부득이 국고에 의해 부양돼야만 한다—근대 군사 행동은 연달아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또한, 군사 장비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무서워졌는데, 이것은 전문적이고 훈련된 군대를 필요로 한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선진국들의 방위는 국가에 의해 재정 조달되어야 한다.

사법

국가가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내의 적들에게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냥꾼들의 국가들에서는, 거의 어떠한 재산도 없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고, 어떤 공식적인 사법(司法)에 대한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러나 재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절도로부터 잠재적 이득이 있다. 부자들의 탐욕과 야망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안락과 향락의 욕망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 —축적하는 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귀중한 재산의 취득은 부득이 시민 정부의 설립과,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는 행정 장관의 직을 필요로 한다.

부자들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개를 자극하는데, 이들은 종종 부자의 재산을 침해할 욕망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시기심에 의해 자극되기도 한다. 수년의, 혹은 어쩌면 계속되는 수 세대의, 노동으로 얻는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단 하룻밤이라

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단지 문관 행정 장관의 보호 아래에서만이다.⁴⁸

만약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판사들의 권위를, 합리적인 문제로서, 받아들이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유용하다. 그러나 또한 인간들 사이에는 이러한 수용을 더욱 있음직하게 만드는 권위에 대한 타고난 존경도 있다. 사람들은 힘, 지혜, 분별 그리고 미덕과 같은 개인적인 자질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숙과 나이를 존경한다. 부는 존경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인데, 대(大)소유주들이 수천의 하인들을 부양하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재산을 쓸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치기들의 시대에 특히 그렇다. 그것은 아랍의 수장(sharif)의 권위가 매우 크고 타타르 족 칸(khan)의 그것이 아주 전제적인 이유다.

인간의 존경의 네 번째 원인은, 비록 이것이 부의 불평등의 결과이긴 하지만, 태생의 불평등이다. 사냥꾼들의 시대에, 중요한 부의 불평등은 없다. 현명하거나 용감한 사람의 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다. 대조적으로, 양치기들의 국가들에서 부는 몇 세대 동안 가족들 안에 머물 수 있고, 태생은 대단히 존경받는다. 큰 부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다. 이런 부와 나란히 시민 정부—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비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계획된 제도—가 나타난다.

48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2부, p. 710, 문단 c2.

시민 정부는,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 설립되는 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비해 부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재산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비해 약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다.⁴⁹

법과 정부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자들에 의해 고안된 제도들이라는 스미스의 주장은 그것이 나쁜 제도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앞에서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획득하는 데 수년의 노력이 걸릴지도 모르는 자기들의 재산을 도둑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다.

공공사업들

국가의 세 번째 역할은 개인들에게 결코 이윤을 낼 수 없을 공공사업들을, 즉 상업, 젊은이들의 교육 그리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상업이 증대함에 따라, 도로, 다리, 운하 그리고 항구와 같은 공공사업들에 대한 국가의 필요도 증대한다. 대부분의 그러한 시설들은, 공공 재정에 어떠한 부담도 부과되지 않고, 통행료나 요금으로 재정 조달될 수 있다. 역시 상업을 촉진시키는 화폐 주조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

49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2부, p. 715, 문단 12.

용을 떠맡고 게다가 국가에 적은 화폐 주조료(seignorage)도 제공한다. 우체국은 매우 큰 이윤을 발생시킨다.

그러한 공공사업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일반 세입에 어떠한 부담도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 자신의 비용을 떠맡기에 충분한 특정 수입을 제공하도록 쉽게 관리될지 모른다.⁵⁰

그러한 수입들을 낼 수 없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익을 주는 공공사업들은 지역적으로 견히고 집행되는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런던 거리는 만약 점등과 포장의 비용이 재무부의 책임이 된다면 그렇게 잘 켜지고 포장되지 않을 것이고, 런던의 특정 거리, 행정 교구(parish), 또는 분교구(district)에 대한 세금이 되는 대신에, 그 비용은, 그 대부분이 전혀 편익을 얻지 못할, 모든 시민들에 대한 세금이 될 것이다.

더 큰 공공 지출의 몇몇 지지자들은 공공사업들과 (아래의) 교육에 관한 스미스의 소견(所見)에서 위로를 얻지만, 그것은 가짜 위로다. 첫째, 스미스는 자기의 소견을 기간 시설과 교육 같이 상업에 필수적인 사업들에 국한한다. 그는 공공사업들을 민간 상업에 대체하는 것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공공사업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된 지지와 현대 국가의 많고 큰 사업들 사이에는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둘째, 심지어 기간 시설 사업들이 수립되게 하는 데 공공 지출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스미스가 받아들이는 곳에서조차도, 그는 이 비용을 직접적인 과세보다는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요금이 불가능하다면, 세금을

50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3부, 제1조목, p. 724, 문단 d2.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수혜자들이어야 한다. 셋째, 스미스의 시대에는 (그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매우 의심하였던 소수의 주식회사들 (joint-stock companies) 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기간 시설 사업들에 자금을 조달할 만큼 충분히 큰 회사들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변했다. 그리고 통행료와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들은 오늘날 훨씬 더 정교해졌다. 그러므로 공공 기간 시설 사업들의 민간 구조와 운영은 스미스의 시대보다 더욱 실용적이다.

이러한 공공사업들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상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만스럽고 미개한 국가들과 속행하는 것과 같은 몇몇 특정 상업 부문들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통상의 창고나 집무실은 서아프리카나 힌두스탄과 무역하는 상인들의 재화를 별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상업의 이익은 종종 외국에 대사를 파견하는 것을 필요하게 하였다. 터키 회사 (Turkey Company)의 상업은 콘스탄티노플에 대사의 수립을 자극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최초의 영국 대사관들은 전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영향을 받는 특정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적당한 세금으로 그러한 이례적인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 같다. 상인들이 어떤 외지고 야만적인 국가와 새로운 무역을 수립하기를 착수할 때, 그들에게 일시적인 독점이 부여될지 모르는 것도 역시 타당한 것 같다. 새로운 기계에 대한 특허권 같이, 이것은 나중에 일반 대중에게 편익을 전달할 어떤 위험에 대해 국가가 그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고 때때로 이러한 무역 보호가 민간 회

사들에게 하청되었지만, 이런 회사들은 무역을 잘못 관리하거나 제한했다. 그것들은 함부르크 회사(Hamburgh Company), 러시아 회사(Russian Company), 이스틀랜드 회사(Eastland Company) [북해 회사(North Sea Company)라고도 함—웁긴이 주], 터키 회사(Turkey Company) 그리고 아프리카 회사(African Company)와 같이 규제된 회사들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자격 있는 사람도 입회금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들은 오히려 동업자 길드들과 같고, 또한 그것들처럼 행동한다. 그것들은 또한 남해 회사(South Sea Company), 허드슨의 만 회사(Hudson's Bay Company) 그리고 왕립 아프리카 회사(Royal African Company)와 같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들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외국 무역에서 배타적인 특권들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들은 그러한 회사들이 실패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것들에게 부여된 영속하는 독점들은 대중에 대한 터무니없는 세금이다.

주식회사들은 은행업이나 보험 같은 반복적인 거래들이나 운하와 같은 건설 공익사업들에서, 특권들이 없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업 형태들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변화하는 세목들에 대해 위험 감수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그러한 산업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스미스는 보통 주식회사들—오늘날 대기업을 지배하는 종류의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특정 회사들에 부여되었던 특권들에 주로 반대한다. 그리고 그는 큰 이사회 주주들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의 직업들에서 성공할 만큼 충분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주들은 작은 이사회를 선출하

고, 이사들은 그 다음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작은 중역 집단에 의존하며, 큰 회사들이 아주 민첩하게 경영될 수 있게 한다.

젊은이들의 교육

전문화가 사회에 전달하는 경제적 효율의 명백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는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똑같은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느라 수년을 소비하는 사람은 혁신적인 생각을 위한 기회가 없다.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 빈곤층은 정신적 무기력, 편협함, 그리고 변화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그것들의 최종 산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이 행하는 근로자들의 ‘소외(alienation)’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개념을 예기한다.

사냥꾼들이나 양치기들의 야만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의 일들의 다양성과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매일의 문제들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판단을 예리하게 유지한다.

자기의 전 생활을 소수의 단순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쓰고 그것들의 효과들도 아마 항상 같거나 아주 거의 같을 사람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 난점들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는 데서 자기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⁵¹

그러나 문명국가들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교육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의 교육의 비용을 더욱 기꺼이 지불하고 또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의 정신이 연습의 부족 때문에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교육에 쓸 돈을—그리고 가족을 위해 겨우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곧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별로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매우 어렵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적은 비용에 대중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필요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장려하거나 심지어 부과할 수도 있다. 대중은 심지어 보통 노동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업료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 학교들을 설립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국고로부터 지불될 수 있을 것이다(그 때는 그들이 곧 자기들의 학생들을 소홀히 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이 공급원으로부터 완전히, 심지어 주로도, 지불되어서는 안 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러한 교구 학교들(parish schools)의 설립은 거의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읽기를 가르쳤고, 그들의 다수에게 쓰기와 계산을 가르쳤다. 잉글랜드에서는, 자선 학교들(charity schools)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기부금은 부득이 선생들의 근면의 필요성을 다소간 감소시켰다. 그들의 생계는 자기들의 특정 직업에서의 성공 및 평판과는 대체적으로 독립적이다.⁵²

51 *The Wealth of Nations*, 권 V, p. 782, 문단 f50.

52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목, p. 760, 문단 f5.

스미스 자신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러한 공적으로 지원되는 지방 학교들 중 하나에서 교육받았다. 그러나 그의 정책 권고들은, 동기가 관대하지만, 전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 그는 학교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재정을 찬성하지만,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지 부분적인 국가 지원만 찬성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무용과 기타 예술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들을 칭찬한다. 확실히 그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흔한 종합 국가 교육(*comprehensive state education*)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교과서들은 더욱 교육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틴어 대신 초등 기하학과 역학이 보통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다. 교육적인 성취에 대한 공적인 상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직업에 들어가도록 허가받기 전에 시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공화국과 로마 공화국이 자기들의 시민들의 상무 정신을 유지한 방식이다. 그들은 시민들의 연습을 위해 연무장을 설립했고, (자기들의 학생들에 의해 사례금이 지불된) 선생들을 임명했으며, 이러한 훈련에서 뛰어난 자들에게 수훈(首勳)의 휘장들을 수여했다. 오늘날, 아마 스위스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소수의 국민들만이 이러한 상무 정신을 훈련 받는데, 비겁의 확산과 자존감의 결여는 무지와 우둔만큼이나 큰 위험이다.⁵³ 자존을 촉진하고 지식을 증진하는 것은 품위와 좋은 질서를 촉진하여 사회에 이익이 된다.

53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목, pp. 787-8, 문단 f60.

종교 교육

모든 연령의 교육을 위한 제도들은 주로 종교 교육을 위한 제도들이다. 국교들의 성직자들은, 토지나 10분의 1 교구세의 지원을 받으므로, 자기만족적으로 되고, 종종 새로운 종교들의 열의와 근면에 의해 무색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한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데 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 국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도덕 체계들은 엄격하거나 자유로울 수 있다. 유행을 좇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체계로 바뀌고, 사치, 무질서한 환락, 그리고 상식의 범위에서 방종에 탐닉한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그러한 방종을 감당할 여유가 있다. 대조적으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더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나친 행위들을 혐오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자기들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의 도덕적 문제는 특히 도시들에서 심각한데, 거기서는 작고, 엄격하며, 종종 반사회적인 교파들 중의 하나가 그들을 호되게 꾸짖지 않는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쉽게 자기무시와 방탕으로 빠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은 과학과 철학의 공부인데, 국가는 교사들에게 (그들을 소홀하고 태만하게 만들) 봉급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배우도록 요구함으로써 그것들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술들을 증진함으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 전환시키는 것이다.

국가 지출의 자금 제공

어떤 지출은 군주의 위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데, 군주는 원수(元首)로서 일반적 존경을 얻어야 한다. 형사 사법 제도의 비용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 절차의 비용은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사람들—즉 그것의 사용자들—이 떠맡는 것이 더 낫다. 참으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공복들은 성과에 따라 지불받아야 한다.

공공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보상이 그것들이 수행되는 결과로서 생길 때보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근면에 비례할 때보다 결코 더 잘 수행되지 않는다.⁵⁴

지방이나 주의 편익을 가지는 지방이나 주의 지출은 전체 사회에 대한 세금보다는 지방이나 주의 세금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도로와 통신의 비용은 일반 과세에서 재정 조달되는 것이 정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비용은 영국에서 유료 도로 통행료(turnpike toll)나 다른 나라들에서 도로·교량 따위의 통행료(péage)와 같은 사용자 요금들에 의해 벌충될 수 있다.

교육의 비용도 또한 정당하게 일반 과세의 책임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만약 그것이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불된다면 그것은 똑같이 적합하고 아마도 유리할 것이다.

⁵⁴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1장, 제2부, p. 719, 문단 20.

공공사업들이 전체 사회에 이롭지만 특정 사용자들에 의해서 지불될 수 없는 다른 경우들에는, 부족액은 보통 일반 과세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들이 상업적 계획 사업들로부터 돈을 모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한 거래자들이다. 공복들이 국고를 거의 무진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필요하게 쓰며, 자신들에게 잘 지불하는 반면에,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제한된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조심스럽고 알뜰하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정부들이 자기들의 토지 소유에서 수입을 조달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국고에 대한 모든 요구들을 지불하기에 불충분하고, 더군다나 국가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재산들보다 덜 잘 관리된다.

왕실 소유지들이 사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몇 년 내에, 잘 개량되고 잘 경작될 것이다. . . . 국왕이 관세와 국내 소비세로부터 얻는 수입은 국민들의 수입 및 소비와 함께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⁵⁵

과세의 원칙들

과세의 설계에서 입법자들을 안내할 네 가지 원칙들이 있다.

⁵⁵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1부, p. 824, 문단 a18.

한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정부에 관해 아는 기술은 없다.⁵⁶

첫째, 국민들은, 가능한 한, 자기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얻는 소득에 비례하여 기부해야 한다.

둘째, 세금은 확실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납부의 시간과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세자들에게 과도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주고, 부패와 협박에 이를 수 있다.

셋째, 세금은 편리한 시간에 부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집에 대한 세금은 임대료가 지불될 때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재에 대한 세금도 또한 편리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재화가 구매됨에 따라 조금씩 납부되기 때문이다.

넷째, 세금은 필요보다 더 비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징수하는 데 많은 비싼 관리들을 필요로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산업을 억제해서도 자본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높은 소비세가 밀수를 조장함에 따라) 탈세를 조장해서도 안 되고 처벌은 탈세로 내몰린 사람들을 파멸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 징세자들로부터 빈번하고 불쾌하며 성가신 방문들을 필요로 해서도 안 된다.⁵⁷

⁵⁶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1조목과 제2조목에 대한 부록, p. 861, 문단 h12.

⁵⁷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p. 827, 문단 b6.

이러한 과세 원칙들은 오늘날 전적으로 당연한 것 같을 것이다. 그가 그것들을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시대의 세금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부당했는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스미스의 다른 세금 제안들에는 비밀관성이 있다. 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을 반대하지만, (가금(家禽)처럼, 우리가 오늘날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물건들도 포함해서) 사치품들에 대한 세금을 지지한다. 그는 국민들이 자기들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자들이 ‘그 비례 이상의 어떤 것(something more than in that proportion)’을 납부하기를 원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

만약 토지의 지대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것은 주기적인 재평가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지대가 때때로 정말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일정 관료제를 필요로 한다—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지주와 임차인 사이의 어떠한 사기 담합도 막기 위해 임대 계약은 신고하고 등기(하며 참으로 단속)해야 한다.⁵⁸

10분의 1 교구세와 같은 토지의 산물에 대한 세금들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것들은 덜 생산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세게 닥친다. 그리고 교회나 국가가 아무런 비용도 함께 나누지 않지만 이윤의 일부를 얻을 때, 그것들은 지주들이 자기들의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나 농부

⁵⁸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pp. 832-3, 문단 c17.

들이 더 나은 경작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한다.⁵⁹

주택 임대료(house rent)는 건물 임대료(building rent)—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이윤—와 부지 임대료(ground rent)—그것이 지어지는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얻는 임대료—로 나뉘질 수 있다.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부자들에게 아주 무겁게 떨어질 것인데, 이것은 아마 부당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료는 확인하기 매우 쉬운 것이다. 부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면서 개량과 건축을 억제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전체 임대료 중 어느 부분이 부지 임대료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렵다.⁶⁰

그러한 난점들로 입법자들은 임대료를 추정하는 더 쉬운 방식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금이 각 주택에서 창문의 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불행히도, 시골의 가난한 가족의 낮은 임대료 주택은 읍의 부자 가족의 높은 임대료 주택보다 더 많은 창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세금은 그것의 영향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⁶¹

자본과 이윤에 대한 세금

자본에 의해 발생되는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즉 이자와 이윤이다. 이윤은 좋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을 고용하는 위험

59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pp. 837-8, 문단 d6.

60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pp. 843-4, 문단 e7-e11.

61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pp. 845-6, 문단 e16-e20.

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고, 만약 그것이 과세된다면,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이윤 마진을 증가시키거나(자기들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한다),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불하는 이자를 줄여야 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태가 더 나쁘게 한다) 것이기 때문이다.⁶²

이자 는 지대만큼 쉽게 과세될 것으로 보일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첫째, 대부금과 상환금은 토지와 지대보다 숨기기가 훨씬 더 쉽다. 그것들을 감시하는 것은 주재님께 나서는 관료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자본은 매우 유동성이 있고, 소유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자본을 해외로 옮김으로써 세금(과 징세자들이 괴롭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국내 산업에서 빼앗는다.

스톡의 소유자는 당연히 세계의 시민이지, 반드시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부담스러운 세금에 사정(査定)되기 위해 성가신 심문에 노출되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욱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어떤 다른 국가로 자기의 스톡을 옮길 것이다.⁶³

몇몇 국가들은—도봇장수와 행상인, 그리고 옛날의 전세 마차와 옛날 두 사람이 메는 의자 가마 같은—특정 거래들의 이윤을 과세했다. 술의 판매 면허는 또 하나의 과세 형태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상인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떨어지는데, 상인들은 세금을 보상하기 위해

62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2조목, p. 847, 문단 f1-f2.

63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2조목, pp. 848-9, 문단 f8.

단지 자기들의 이윤 마진을 올릴 뿐이다.⁶⁴

세금은 또한—유산 상속세나 인지세와 같이—재산이 이전될 때도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들은 국가의 자본을 잠식한다. 그 세금들은 그 자본을 공공 지출의 현재 소비로 변화시키고, 생산적인 기업들에 투자될 것을 더 적게 남긴다.⁶⁵

임금, 개인 그리고 재화에 대한 세금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떠맡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세금도 궁극적으로 고용주들에 의해—그러므로, 다시 한 번, 소비자들에 의해—지불된다. 그러한 세금들이 터무니없고 파괴적이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한다.⁶⁶

한 사람의 부가 시시각각 변한다고 가정하면, 부유세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⁶⁷ 인두세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무겁게 떨어지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소득세처럼, 그것은 그저 임금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릴 뿐이다.⁶⁸ (소금, 가죽, 비누 그리고 양초와 같은) 생활

64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2조목, pp. 852-3, 문단 g1-g4.

65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1조목과 제2조목에 대한 부록, p. 862, 문단 h14.

66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1조목과 제2조목에 대한 부록, pp. 864-6, 문단 2.

67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4조목, p. 867, 문단 j2-j4.

68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4조목, p. 869, 문단 j8.

필수품에 대한 세금도 똑같은 일을 한다.⁶⁹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단지 그러한 사치품의 가격만 올리지만,⁷⁰ 관세처럼, 그것은 징수하는 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것은 특정 산업을 억제하고, 이런 종류의 무거운 세금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피하도록 유발하여, 주제넘게 나서는 관료제에게 그들을 단속하도록 요구한다.⁷¹

공공 부채

공공 부문을 운영하는 비용이 차입을 통해 자금 조달될 때, 그것은 국가 안에서 축적되어 온 자본의 약간을 소비한다. 생산적인 노동의 유지에 쓰려고 한 민간 자본은 비생산적인 노동의 지원으로 전환된다.⁷²

스미스는 공복들이 우리가 오늘날 그 말을 이해할 의미에서 ‘비생산적(unproductive)’이라고 꼭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비록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보다 덜 효율적이고 덜 잘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가 정말 생각한다면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들이 소비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것들이 부채로 자금 조달된다면, 이것은 국가의 자본을 소비하는 것에 해당된다.

69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4조목, pp. 874-5, 문단 k10-k13.

70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4조목, p. 873, 문단 k9.

71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2장, 제2부, 제4조목, pp. 896-9, 문단 k60-65.

72 *The Wealth of Nations*, 권 V, 제3장.

반면에, 더 많이 차입될수록, 과세로 더 적게 조달됨에 틀림없으며, 차입은 전쟁과 같이 크고,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출을 자금 조달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전쟁의 모든 비용들이 그 당시의 세금 인상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면 민간 자본들은 확실히 크게 고통 받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전쟁을 더 짧게, 덜 인기 있게,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정부 차입의 원칙이 확립되었을 때, 그것에 부속돼 있는 조세들의 수는 여전히 대중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자본들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부담을 지운다. 부채의 결과로서, 영국의 평화 시기 공공 예산은 이제—조세에 기반을 둔 인습적인 자금 조달 하에서, 한 전쟁을 벌이는 데 충분할—1천만 파운드 이상이다.

사람들은 공공 부채가 그저 한 조의 호주머니들에서 다른 조의 호주머니들로의 이전일 뿐이고,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며, 국가가 조금도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의 공공 부채의 매우 큰 부분을 소유한다. 게다가, 부채는 자본을 지주들과 고용주들로부터 정부의 채권자들 쪽으로 돌린다. 자본이 더 적어서, 토지가 덜 개량되고, 농업이 쇠퇴한다.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징세자들로부터 필요한 방문들의 추가적인 괴롭힘과 비용에 직면한다. 그래서 자본은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토지의 상태나 자본 스톡의 훌륭한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단순한 채권자들로, 이전되고 있다.

차입은 그것을 한 모든 국가를 약화시켰다.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독립된

채 남아있는 유일한 이탈리아 공화국들이다. 스페인은 그 관행을 이탈리아에서 배운 것 같고, 영국이 1실링의 빚을 지기 전, 16세기 말까지는 대단히 빚을 졌다. 프랑스도 역시 큰 부채 부담을 겪는다. 정부의 낭비와 사치가 민간 자본에 만든 모든 파손들을 수리할 만큼 충분히 민간 자본이 강했던 것은 영국의 군사 지출과 조세 부담이 충분히 가벼웠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전쟁이 여전히 그것을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 부채들이 늘어났을 때 그것들이 공정하고 완전하게 상환된 거의 어떤 예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이 자신의 식민지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컸다. 지난 전쟁은 9천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주로 식민지들 때문에 착수된, 1739년의 스페인 전쟁은 4천만 파운드 이상 비용이 들었다. 이 전쟁들이 없었더라면, 공공 부채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소멸되었을지 모른다.

식민지들이 대영 제국의 주들이므로, 그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국에게 수입도 군사력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단지 제국의 허식부리는 첨가물들일 뿐이다. 그리고 제국이 더 이상 이 첨가물들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면, 제국은 그것들을 해방시키고, 비용을 절약하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3 대단히 축약된 도덕 감정론

덕의 기초로서의 타고난 공감

인간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대해 타고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들 중 가장 나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약간의 동정을 느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맞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움찔하고, 느슨해진 로프의 곡예사를 볼 때 몸을 비튼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또한 공유한다. 그것을 동정(sympathy)이라 부르자.⁷³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본성에는 명백히 몇몇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록 그가 그들의 행복을 보는 즐거움을 제외하고는 그것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그에게 필요하게 한다.⁷⁴

⁷³ 스미스는 동정(sympathy)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충실할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공감(empathy)이 더 정확하게 서술적인 말일지도 모른다.

⁷⁴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1부, 제1절, 제1장, p. 9, 문단 1.

그래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이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것 같을 때만 동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야기한 상황이다. 비슷하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완전히 행복할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돌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동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과도한 슬픔이나 분노나 심취를 동정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과 의견을 정확히 공유할 때 진정한 기쁨을 정말 느낀다.⁷⁵ 우리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들의 동정은 우리의 기분이 더 좋아지게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정당하고, 적당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과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양쪽 다를 곤란하게 한다.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구경꾼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의 완전한 사나움—말하자면, 부당한 취급을 당한 어떤 사람의 격렬한 분노나 최근에 가족과 사별한 어떤 사람의 깊은 슬픔—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없다. 우리의 동정적인 감정은, 비록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더 약하다.

⁷⁵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1부, 제1절, 제2장.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감정의 구경꾼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보다 덜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들을 곤란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감정을 억제하게 할 것인데, 자신들을 자기들의 곤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더욱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 점차 우리는 무슨 감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한 것 같은지 알게 된다. 우리는 그것들을 불편부당한 구경꾼이 우리의 감정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것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지점으로 누그러뜨리려고 한다. 참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진정한 걱정을 보여주도록 고무되는데, 왜냐하면 불편부당한 구경꾼이 시인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별로 동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애착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비로운 애착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성의 완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홀로 인류 사이에 감정과 열정의 전 우아함과 예의 바름이 존재하는 감정과 열정의 조화를 낳을 수 있다.⁷⁶

인간 도덕의 원천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은 완전히 새롭다. 제논과 같은 고대인들로부터 데이비드 흄과 같은 현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도덕적 행동을 개인이나 사회에 이로운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스미스는 도덕적 행동이 참으로 이롭지만 그것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간들은 서로에 대한 타고난 공감을 가지고 있고, 우

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1부, 제1절, 제5장, p. 25, 문단 5.

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참을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참지 않을 것인지
빠르게 안다.

고통, 배고픔 혹은 사랑과 같은 열정들은 개인에게 매우 특유하다. 그러나
(동료 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열정들과 (증오와 같은) 반사회적 열정들도
또한 있고, 이것들은 동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⁷⁷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의 슬픔보다 그의 기쁨에 더 동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빈곤을 숨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
의 부를 과시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돈이 정말로 행복을 사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 동정 그리고 찬
탄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실제로 배달하는 시시한 것들과 사소한
편의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

보상, 처벌 그리고 사회

보상은 사회적 열정을 장려하는 데 중요하고, 처벌은 반사회적 열정을 억
제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성 혹은 불찬성을 일으키는 것은
결과 이상으로 의도이다.⁷⁸ 유용한 행동이 긍정적 동기에서 생길 때만 우
리는 그것이 보상받을 만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해로운 행동이 부정적인
동기에서 생길 때만 우리는 그것이 처벌받을 만하다고 믿는다.⁷⁹

⁷⁷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1부, 제2절.

⁷⁸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1절, 제3장과 제4장.

⁷⁹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1절, 제4장.

참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의 바로 그 존재는 부당하고 까닭이 없는 악의가 처벌을 통해 억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자연은 이것을 지도할 강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었다⁸⁰(비록 우리가 전체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이성의 탓으로 돌릴지 모르지라도).⁸¹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을 오직 그들의 행동이 해를 끼치려고 의도될 때만 처벌한다.⁸² 심지어 강도들과 살인자들도, 그들이 서로를 약탈하고 살해하려는 자기들의 충동을 억제한다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⁸³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우리는 정의(justice)라 부른다. 정의가 없이는, 사회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이것은 그것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강한 이유다.⁸⁴

양심

그러나 자연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법과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것, 즉 양심(conscience)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행동도 심판한다.⁸⁵ 그 내부 판

80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1절, 제5장. p. 77, 문단 10.

81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2절, 제3장.

82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3절, 제1장과 제2장.

83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2절, 제3장, p. 86, 문단 3.

84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2부, 제2절, 제1장.

85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3부, 제1장.

사는 호된 비평가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상관없다. 우리는 그 칭찬을 *받기에 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⁸⁶

양심은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잊어버리는 것을 막는다. 새끼 손가락의 상실은 중국 전체를 없애 버리는 지진보다 우리에게 더욱 직접 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양심은, 만약 우리의 새끼손가락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먼 생명들의 상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양심은 우리에게 그 시각의 약간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개인적 이득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내키지 않게 한다.⁸⁷

또 하나의 유용한 본능은 규칙들을 만들고 따르는 우리의 성향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점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 적절하거나 부적절한지에 관한 견해를 발전시킨다. 이런 도덕 규칙들은, 각 상황을 새롭게 생각해 내어야 할 필요 없이, 행동 방법에 관한 빠른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 다른 사회들은 약간 다른 규범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각 체제가 사회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단지 몇몇치 못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규칙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다.⁸⁸

8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3부, 제2장.

87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3부, 제3장.

스미스에게, 도덕은 사회 심리학의 문제이다. 어떤 행동 규칙들은 잘 작동하는 사회를 발생시킨다. 그것들이 준수될 때, 사회가 번영하고, 그것들이 준수되지 않을 때, 그것이 파괴된다. 스미스는 다윈 1세기에 전에 쓰고 있었지만, 그는 진화적 관점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을 부여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과 돈

부자들도 역시 의도하지 않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사치품과 지위 상징물(status symbols)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그것은 위대한 평형 장치(equalizer)이다. 부의 편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망상일지 모르지만, 부를 추구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게 되고, 이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도중에 과학, 예술 그리고 지적 생활도 향상시킨다.⁸⁹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그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⁹⁰

88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3부, 제4장, p. 159, 문단 7-8.

8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4부, 제1장.

90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4부, 제1장, pp. 184-5, 문단 10.

덕과 좋은 사회

진실로 고결한 사람은 분별(prudence), 정의(justice) 그리고 자선(beneficence)을 가지고 있다. 분별은 개인의 지나친 행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사회를 이롭게 한다.⁹¹ 정의의 규칙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다. 자선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그래서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의 격렬한 정열에 대한 자제(self-command)도 역시 고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양면을 가져서, 열광자의 날붙이(cold steel)로 변할 수 있다. 보통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다.⁹² 그러나 인류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희생이 때로는 필요하다.⁹³ 자연은 몇몇 개인들에게 그러한 희생을 할 자제를 정말 주고, 우리는—그것이 파괴적인 목적보다는 이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되는 한—그것을 찬탄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은 그것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같지 않다. 혼란의 시대에는, 한 국가의 제도들이 그것의 국민들의 행복과 충돌할 수 있다.⁹⁴ 그러면 정치인들은 기존 제도들을 타도하고 그것들을 ‘합리적(rational)’ 대안들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제도들이 개혁가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진정

91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1절, 제1장.

92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1절, 제1장.

93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3절 제3장, p. 235, 문단 3.

94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2절 제2장, p. 229, 문단 4.

한 편익들을 전할지 모른다는 점과 모든 개인들이 정치인들의 대(大)계획들에 그렇게 쉽게 굴복할지 모르는 자기들 자신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와 인간성이 몽상가들이나 광신자들의 이성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조화롭고 기능하는 사회의 창조에 대한 더 확실한 안내자다.

체계의 사람은... 손이 장기관 위에 상이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아주 쉽게 자기가 위대한 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쉽게 배열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위대한 장기관에서 모든 단일의 말이,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 위해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⁹⁵

여기서 스미스의 윤리 분석은 그의 경제 분석과 아주 같다. 도덕과 시장은 둘 다 기능적 체제들이다. 그것들은 본능적 원리들에 따라 작동하고, 가만히 두면, 인간 복지를 증진하도록 꽤 잘 작동한다. 만약 우리가 다른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하느라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사리에 맞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체 메커니즘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을 방식으로 이런 체제들을 재형성하려고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95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6부, 제2절 제2장, pp. 233-4, 문단 17.

4 추가적인 읽을거리

Butler, Eamonn (2007), *Adam Smith - A Prim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스미스의 생애와 저작들에 대한 짧고 간단한 소개.

Haggarty, J. (1976), *The Wisdom of Adam Smith*, Liberty Fund, Indianapolis, IN, USA. 만약 당신이 그저 스미스 인용문들만 찾는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O'Rourke, P. J. (2006), *On The Wealth of Nations*, Atlantic Monthly Press, New York, USA. 스미스의 주요 아이디어들에 관한 재치 있지만 통찰력 있는 요약.

West, E. G. (1976), *Adam Smith: The Man and His Works*, Liberty Fund, Indianapolis, IN, USA. 스미스의 생애, 연구 그리고 영향력에 관한 짧은 전기적 개관.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and The Incredibly Condensed Theory of Moral Sentiments*, Adam Smith Institute, 2011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소장 버틀러 박사가 애덤 스미스의 방대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축약하고 주요 개념들을 명백하게 설명한 것이다.

본 역서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2016년도 영 하이에키언 번역 사업의 결실로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9명의 역자들이 분담하여 번역하였다. 분담 내역은 전자책 원서 화면 페이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황수연 5-13페이지

이상현 14-22페이지

김지혜 23-31페이지

임대근 32-40페이지

박준원 41-49페이지

손경모 50-58페이지

심형엽 59-67페이지

정유진 68-76페이지

한지훈 77-86페이지

대학생 번역자들은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계 자유경제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졸업생 번역자들도 자유경제 아카데미와 이런 저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

번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번역해서 영 하이에키언 번역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 황수연에게 보내었고 황수연은 이것들을 취합하여 한 문장 한 문장 원문과 대조하면서 퇴고하였다. 편집 작업은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김지혜 사무간사가 담당했다.

이 역서의 발간에는 한 기업의 고마운 물적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 연구소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소장은 흔쾌히 번역권을 주셨다. 옮긴이들은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보급을 위해 본 번역 사업에 도움을 주신 이러한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린다.

옮긴이들을 대표하여 2017년 4월 황수연 씀

옴진이 소개

황수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행정학과 석사, 박사;

전 경성대학교 교수, 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이상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학사, 행정학과 석사, 박사 과정 수료

김지혜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수료

임대근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박준원 명지대학교 행정학 및 경제학과 재학

손경모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졸업; 자유인문학회 회장

심형엽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재학

정유진 창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재학

한지훈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재학